

2025 아시아교회 정책연구소  
제2차 컨퍼런스

# 아시아 교회와 도시 선교



## 차례

예배순서	3
기조연설 아시아 교회와 도시 선교 _장봉생 대표	6
발 표 아시아 교회와 도시 선교 : 역사신학적 관점에서 _안인섭 교수	8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도시 선교와 교회 사역에 관한 연구 _배춘섭 교수	28
도시 선교와 도시 사역 : 예수항남교회의 관점에서 _정갑신 목사	52

## 후원이사

강동교회 김태영	대구수정교회 이창수	석관중앙교회 홍종호	참빛교회 이재천
광명새빛교회 이철우	명성교회 정우홍	성림교회 진용훈	천안아산교회 최윤석
광주산수교회 임춘수	부천서문교회 이성화	성산교회 김한성	청주광일교회 박상준
광주서광교회 고광석	산서울교회 한덕수	세광교회 유창진	청주예수열방교회 박순석
광주성은교회 김상신	삼락교회 김태영	신현교회 김상순	초량교회 김대훈
광주중앙교회 한기승	삼호교회 이형만	안양석수교회 김찬곤	하야방송/사랑많은교회 유성현
교하대광교회 정신길	상암교회 김봉수	원주중부교회 김미열	해성교회 김신근
구리성광교회 김희수	서대문교회 장봉생	예우림교회 유병희	엠오바이오 임창희
구미서현교회 최요한	서영교회 한수환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서대문교회 (소속) 김영환 황순정
능곡중앙교회 천세봉	서울빛샘교회 이영형	은평교회 김삼열	
대구목자교회 박기준	서현교회 이상화	장성교회 김재철	

**1부 예배**

인도 해성교회 김신근 목사

예 배 선 언 \_\_\_\_\_ 인 도 자

목 도 \_\_\_\_\_ 다 같 이

사 도 신 경 \_\_\_\_\_ 다 같 이

찬 송 \_\_\_\_\_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_\_\_\_\_ 다 같 이

- 1.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 2.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 3.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 4.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 5.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 도 \_\_\_\_\_ 엠오바이오 임창희 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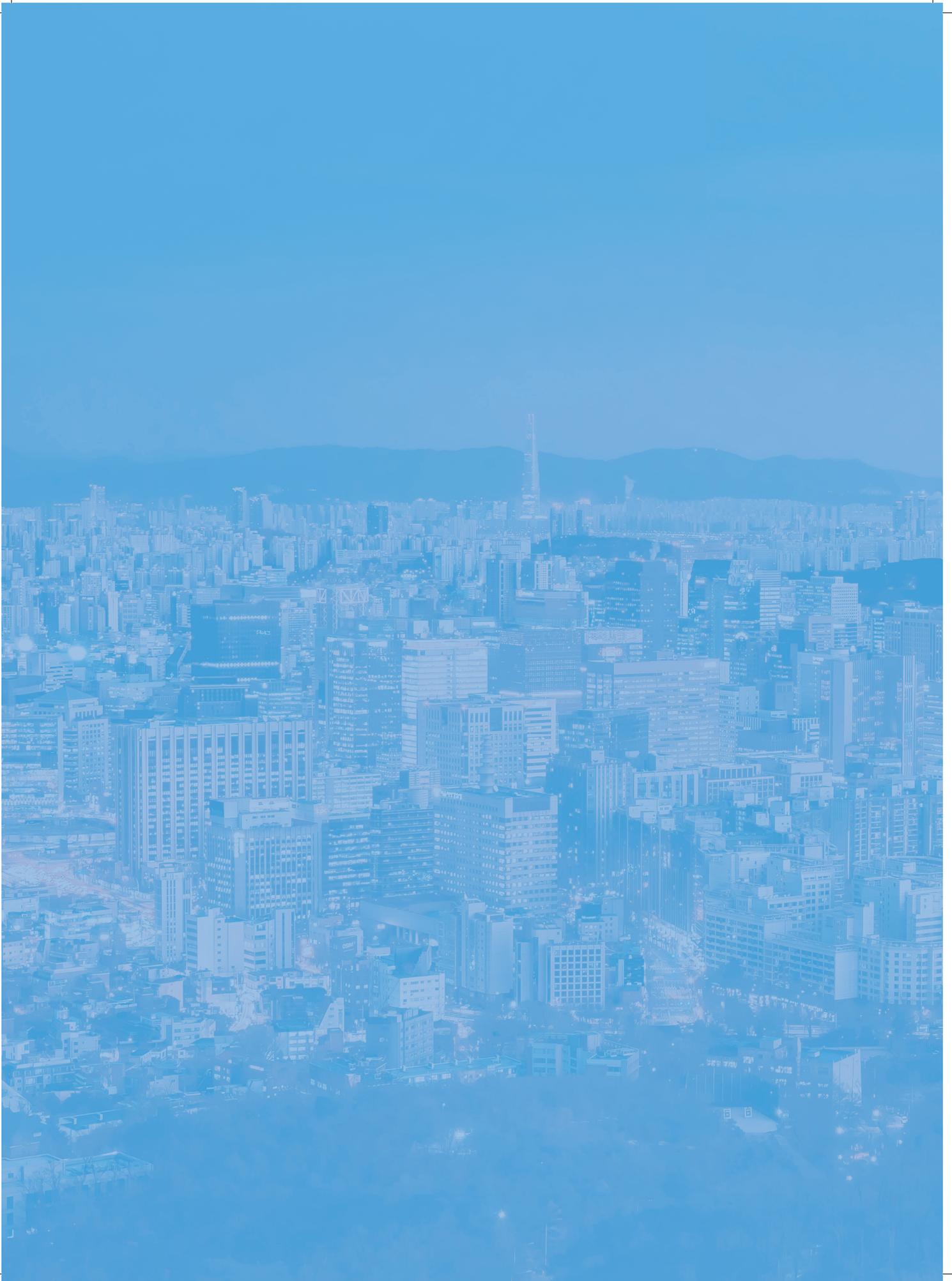
성 경 봉 독 \_\_\_\_\_ 고린도전서 1장 27-31절 \_\_\_\_\_ 다 같 이

- <sup>27</sup>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 <sup>28</sup>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 <sup>29</sup>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 <sup>30</sup>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 <sup>31</sup>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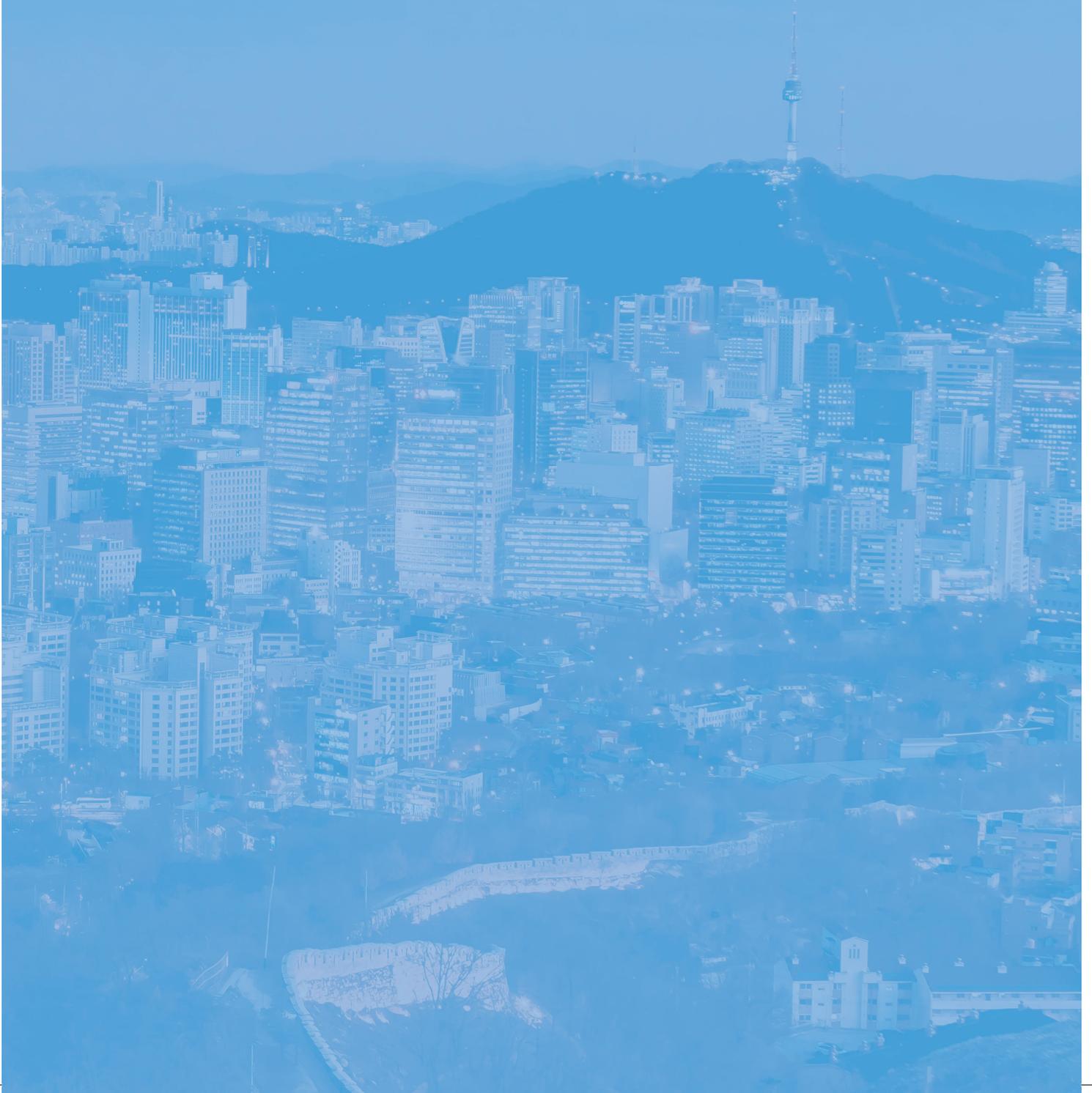
설 교 \_\_\_\_\_ 하나님의 선교원리 \_\_\_\_\_ 안양석수교회 김찬곤 목사

축 도 \_\_\_\_\_ 구리성광교회 김희수 목사

**2부 후원이사 위축식**



# 아시아 교회와 도시 선교



## 기조연설

# 아시아 교회와 도시 선교



**장봉생 대표** Bong-Saeng Jang

아시아교회 정책연구소 대표



1. 제2차 산업혁명 이후 도시 인구의 집중화가 시작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시인구가 전체인구의 80%를 넘어섰다. 아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세계 최대도시도 알려진 인도의 델리(3천1백만명)를 비롯해 5대도시(상하이, 베이징, 뭄바이, 카라치)가 모두 아시아에 속해있다.
2. 우리나라도 5대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인구를 합치면 약 2천만명으로 전체인구의 40%를 차지한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수도권 인구와 맞먹는다.



3. 교회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선교 또한 도시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사도바울이 유대인 회당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4. 아시아교회 정책연구소는 아시아교회들의 성장과 부흥을 통해 각 지역과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차 컨퍼런스는 '아시아교회를 위한 정책, 개혁신학이 답하다'를 주제로 정하고, 개혁신학적 기초 위에서 아시아교회를 향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5. 이번 2차 컨퍼런스는 아시아 도시선교를 주제로 정하고, 현황과 대안을 제시한 발표 자료들을 정리하여 아시아 각국 교회와 교단들에 제공할 예정이다. 🌐

## 발표 I

# 아시아 교회와 도시 선교 : 역사신학적 관점에서

**안인섭 교수 In-Sub Ahn**

총신대 / 아시아교회 정책연구소 운영위원장

## I. 들어가는 글: 문제제기

현대의 선교는 경제, 사회, 정치, 세속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 안에서 도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사실 성경에서 제시했던 선교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사도 바울이 고대 로마 제국의 도시들을 방문하여 선교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11세기에 중세 도시가 형성되자 도시선교를 지향하는 새로운 수도회인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도미니쿠스 수도회 등 탁발수도회가 등장하여 중세 교회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전향적이었던 도시선교 그룹은 16세기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개혁파였다. 개혁주의는 도시 중심의 중상공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네트워크를 타고 전 유럽으로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었다. 제네바를 포함한 스위스와 독일의 여러 도시들, 특히 16세기 이후 17세기에 세계 무역을 주도했던 네덜란드의 도시들이 모두 개혁파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도시선교의 흐름은 18세기 미국 기독교의 등장과 더불어 더욱 심화되었

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시선을 아시아로 돌리면 매우 복잡해진다. 아시아 교회는 아시아의 문화적 다양성, 그리고 아시아의 역동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발전 속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800년에 세계 인구는 9억 7,800만 명이었고, 그 중 2억 800만 명(23.1%)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 이 2억 800만 명의 기독교인 중 86.5%가 백인이었다. 윌리엄 캐리가 1783년에 인도 캘커타로 여행했을 때, 아시아 인구는 6억 2,000만 명이었고, 기독교인은 0.2%일 것으로 추산된다.<sup>1</sup>

그렇지만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로부터 200년 후인 21세기 현재, 아시아는 80억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 현재 세계 기독교인의 60%가 제3세계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데, 유럽과 북미 기독교는 (물론 질적으로는 훌륭한 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급격히 양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반면에 아시아는 빠른 속도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고 있고 특히 인구 연령대가 젊다. 그러므로 향후 아시아를 향한 선교를 논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나는 아시아라고 하는 특수성(Particularity)이며, 다른 하나는 도시선교라고 하는 보편성(Universality)이다.<sup>2</sup>

도시선교라는 주제를 전통적인 신학 위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로는 먼저 어거스틴의 『신국론』을 가지고 도시 선교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발견할 수 있다.<sup>3</sup> 실제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도시(Civitas Dei)로 묘사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이래 종말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에서 자기 사랑적(amor sui)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amor Dei)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도시선교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찾자면 단연코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라는 도시에서 행했던 도시선교를 꼽을 수 있다. 칼빈의 제네바 목회는 한 마디로 칼빈의 도시목회 혹은 문화목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적인 영역에 대한 칼빈의 목회적 관심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제네바에 몰려온 종교적 난민과 이민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1 Ro Bong Rin, *Asian Church History*, (Yong-In: Kingdom Books, 2024), 6-7.

2 안인섭,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바라보는 아시아 교회," 아시아교회 정책연구소 제1차 정기 컨퍼런스 (2023.9.16.), 5-6.

3 채혁수, "도시선교와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어거스틴의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74 (2021), 735-765.

4 어거스틴의 신국론은 다음을 보시오. Augustine, *De Civitate Dei (DCD)* [trans. City of God], Ed. B. Dombart and A. Kalb, CCL 47-48, Turnhout: Brepols, 1955.

을 향한 칼빈의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목회는 제네바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었다.<sup>5</sup> 칼빈의 종교개혁의 과정에서는 항상 빈민이나 여성 등과 같은 당시의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관심과 복지적 실천이 뒤따랐다. 이러한 이해에서 본 연구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도시적 환경에서 선교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sup>6</sup> 더 나아가 칼빈 시대에 총체적인 변화를 이룩했던 도시 제네바는 칼빈 이후에도 칼빈주의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sup>7</sup>

필자는 지난 제1차 아시아교회 정책연구소 컨퍼런스에서 아시아 교회 정책을 위한 개혁주의적 신학의 기초로서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sup>8</sup> 이것을 기초로 하면서 본 논문은 21세기 아시아라는 구체적인 컨텍스트(context) 안에서 어떻게 도시선교의 방향을 잡아 나가고 그 내용을 채울 수 있을지, 도시선교의 가장 이상적인 역사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16세기 칼빈의 제네바의 도시선교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팀 켈러의 도시선교의 모델 : 칼빈의 제네바

21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도시선교의 흐름을 주도하며 가장 큰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이 뉴욕의 리더 교회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던 팀 켈러였다고 말하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인간의 가치를 상품적으로 전락시키고 빈익빈의 문제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대 도시인 뉴욕에서 복음 전도와 구제의 사역을 진행했던 팀 켈러는 복음이 도시 속으로 들어가야 하며, 복음이 도시를 구속해야 하고, 더 나아가 복음으로 도시 문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도시선교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sup>9</sup> 물론 그의 신학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이며, 그의 신학이 전형적인 서양, 미국, 뉴욕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sup>10</sup> 그는 선명한 복음 이해에

5 성석환, “칼뱅의 제네바 도시목회와 한국교회 ‘문화목회’의 실천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 91집 (2014), 159-184.

6 봉원영, “도시 제네바에서의 칼빈의 종교개혁과 현대 기독교의 도시 선교적 방향성 모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권 11호 (2021), 436-449.

7 최용준, “칼빈주의가 제네바의 변혁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3(3) (2018), 323-351.

8 안인섭,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바라보는 아시아 교회,” 아시아교회 정책연구소 제1차 정기 컨퍼런스 (2023.9.16.).

9 팀 켈러, 『팀 켈러의 센터처치』 (서울: 두란노, 2016), 188-511.  
김성욱, “팀 켈러(Tim Keller)의 도시선교사역 연구” 『선교신학』 74집 (2024), 15-19.

10 양현표, “팀 켈러의 목회론,” 『갱신과 부흥』 29호 (2022), 309-343.

기초한 개혁주의 관점에서 현대 교회를 향한 역동적인 목회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팀 켈러의 스승이자 총신에 교수 선교사로도 활동했었던 미국 웨스트민스터의 간하배 (Harvie M. Conn) 교수는 미국의 도시 선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언어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다.

미국의 산업 도시가 발전하는 가운데, 교회는 실패했다. 교회는 태도와 사고 방식 면에도 여전히 개인주의적이고, 기업가적인 정신과 제휴하고 있었다. 교회는 도시에서 부상하는 중상류층에 순응했으며 새로운 근로 계층으로부터는 소외되었다.<sup>11</sup>

간하배는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이 세상의 제도화된 죄와 공적인 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첫 열매로서 성령께서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의 표적이요 구조적 정의의 담지자라고 정리해 주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현대 도시 안에서 기독교의 역할에 대해서 1) 기독교 시민 교양을 회복하고 실천하며 2) 시장 경제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3) 돌봄과 자선의 차원을 뛰어넘어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하며 4) 건강한 시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사역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sup>12</sup>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간하배나 팀 켈러 모두 복음 전도와 문화 변혁, 그리고 사회봉사를 총체적으로 강조했던 도시선교의 방향성은 오늘 현재 아시아 도시 선교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팀 켈러는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저명한 칼빈과 베자 연구 학자인 스캇 매니치(Scott M. Manetsch)가 연구했던 제네바 목사회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sup>13</sup> 이 제네바 목사회를 통해서 제네바의 목회자들이 중세적인 영성으로부터 개혁주의적인 영성으로 개혁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다. 이런 연구에 기초해서 팀 켈러는 칼빈의 실천신학을 목회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강의 제목 자체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의 강의 제목은 “팀 켈러는 존 칼빈의 목회적 실천에서 무엇을 배웠는가”였다.<sup>14</sup> 결국 팀 켈러가 강조하는 도시선교를 위한 중요한

11 간하배, “도시화와 개인화 현상” 『상담과 선교』 2권 3호 (1994), 41.

12 봉원영,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시와 기독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2권 4호 (2022), 585-588.

13 Scott M. Manetsch, *Calvin's Company of pastors: Pastoral care and the emerging Reformed Church, 1536-160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이 연구는 『칼빈의 제네바 목사회: 활동과 역사: 개혁과 목회자 모임의 모델』이란 제목으로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부흥과 개혁사에서 출판된 바 있다.

14 Tim Keller, “What Tim Keller Learned from John Calvin's Pastoral Practices” TGC National Conference (2017). 이 강연의 동영상은 다음을 보라. <https://youtu.be/Eo0Mb5-9pV8>

전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도”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며 제네바의 목회자들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형성되었는지 그 “형성적 목회 실천(formative practices)”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팀 켈러는 자신이 리더며 교회에서 은퇴한 후에는 칼빈의 제네바의 목회를 연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팀 켈러에 의하면 이 형성적 목회 실천에 근거할 때 칼빈의 제네바는 세가지 통찰을 제시해 준다.

-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형성은 설교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 둘째는 수도원적 실천의 중요성이다.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수도원주의는 영적 엘리트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도원적 삶 자체를 비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소수의 성직자만 수도원적 삶을 사는 성직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수도원주의자들이 행하는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도원적 실천의 보편화를 강조했다.
- 셋째로 종교개혁시대 제네바에서 실행되었던 목회자 영성 형성은 현대의 목회자 훈련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평생에 걸친 훈련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팀 켈러는 그의 목회신학과 도시선교의 모델인 칼빈의 제네바의 어떤 특징을 주목했을까? 팀 켈러는 자신의 강의에서 칼빈의 제네바에서 주목해야 할 점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 첫째는 강해설교다. 칼빈 당시 제네바에서 드러졌던 예배와 이때 칼빈이 행했던 강해설교의 강화가 칼빈의 도시선교의 기초를 형성했다. 따라서 제네바 시민들은 매일 강해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선교적 삶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 둘째로 교리교육이다. 제네바에서 여러 차례 드러졌던 예배 가운데 칼빈은 교리교육적 예배도 드러지도록 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리교육을 받아야 했다. 이 교리문답에는 물론 칼빈의 개혁신학이 담겨 있는 것이다.
- 셋째는 시편에 대한 강조다. 심지어 칼빈은 시편 150편 전체를 아름다운 선율에 맞추어 프랑스로 시편 찬송가로 만들어 예배 때 부르도록 했고 외우게 했다.

- 넷째는 성찬에 대한 강조다. 성찬은 예배뿐 아니라 목회자의 영성 형성과 성도들의 영성 형성의 방편으로도 중요하게 실천되었다. 칼빈은 성찬을 매주 실행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실제로는 1년에 4번 성찬을 실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성찬이 영성 형성에 중요한 이유는 성찬을 준비하면서 목회자들은 서로를 점검하며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성도들은 성찬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펴봐야 했고, 또 교회의 장로들이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삶을 나누고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교리교육을 다 받은 성도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성찬의 깊은 영적 의미를 묵상하며 헌신을 다짐할 수 있었다.
- 다섯째는 매일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다.
- 여섯째는 목회적 사역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제네바는 컨시스토리를 통해서 매주 목요일에 장로들이 목양적 사역을 실행했다. 또한 제네바 목사회(Companion of the pastors)는 제네바 뿐만 아니라 근처의 시골 목회자도 포함하여 20-30여명이 참석했다. 매주 금요일 오전 8시부터는 일반적인 컨퍼런스 형식으로 진행하여 성경주해와 토론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 (대략 9:30-12:00)에는 목회자들만 남아서 설교에 대해서 상호 평가하는 시간도 가졌다. 후에는 이 모임이 노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런 치열한 과정을 통해서 제네바는 그 역동적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던 시대에 교리적 통일성과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고 설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실천했던 목회적 내용은 성경의 원칙으로 자신들의 삶을 개혁할 뿐 아니라 제네바라는 세속적인 도시를 강력한 영적 공동체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고, 팀 켈러는 이것을 자신의 도시선교의 중요한 역사적 모델로 삼았던 것이다. 아시아의 도시선교를 생각할 때, 물론 아시아라는 독특한 역사적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전제하면서도, 칼빈의 제네바 목회가 아시아 도시선교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III. 칼빈의 제네바의 도시선교<sup>15</sup>

#### 1. 배경

##### 1) 일반적 배경

역사적으로 보면 십자군 전쟁의 결과 도시와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토지 중심에서 통상과 교육이 중요시되어 새로운 부의 원천이 생겨났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계급 즉 부르주아(Bourgeoisie)가 등장하게 되었다. 부르주아들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 고위 귀족에 대항하여, 국왕과 동맹 관계를 형성했다.

15-16세기 독일은 각 영주들이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다. 독일, 스위스 지역에서 지방정부들이 독립국가라고 보일 정도의 자치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의 정착 요인중의 하나는 많은 도시들의 자치권은 도시가 종교개혁을 지지했을 경우, 그 도시가 종교개혁을 수행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각 도시들 간의 자치권의 요소들은 후에 종교개혁을 진행하거나 반대하는 도시들 간의 연합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었다. 종교개혁의 수용은 도시간의 연합관계를 깨는 경우가 될 수도 있었고, 또는 다른 연합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과 연결되었다.<sup>16</sup>

##### 2) 16세기 제네바

칼빈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는 1536년 제네바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세상을 떠난 1564까지 제네바에서 사역을 감당했다. 물론 중간에 잠시 스트라스부르에 3년(1538-1541)정도 체재하기는 했지만 거의 평생의 활동은 제네바에서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볼 때 16세기 초의 제네바는 사보이인들의 영향하에 있었으며, 가톨릭 주교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다. 정치와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인 영향이 서로 맞물려 있었던 전형적인 유럽의 상황이었다. 이와 동시에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음으로 프랑스의 신앙적 영향도 간접으로 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당시의 제네바 사람들은 사보이인들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가 강력했지만 가톨릭 교회는 사보이와 같은 편이었다. 따라서 제네바는 종교개혁적인 흐름과 독립의 의지가 함께 묶여서 진행되고 있었다. 1527년경부터 개신교적인 신앙과 제네바 민족주의가 맞물려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사보이인

15 이 챕터에서 다른 내용을 보다 상세히 보기 위해서는 필자의 다음 연구를 보시오, 안인섭, "칼빈의 기독교교육 사상이 제네바시 공동체에 미친 영향," 『기독교교육논총』 48 (2016), 183-214.

16 안인섭, 『한권으로 읽는 교회사』 (서울: GMS, 2022), 182-184.

17 안인섭, 『칼빈』 (서울: 익투스, 2015), 235-241

들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곧 로마 가톨릭 신앙을 떠나는 것이고, 제네바에 개신교 신앙을 수용한다는 것이었다.<sup>18</sup>

종교개혁이 맹렬하게 진행되면서 교회 소유지와 재산이 1534년 9월부터 제네바 시의 소유가 되었다. 드디어 로마 가톨릭의 미사도 1535년 10월 15일부로 중지되었다. 결국 제네바의 가톨릭은 1535년 연말로 수도원 재산과 성직자 계급 제도를 폐지하면서 제네바 시는 개신교 자유 도시가 되었다. 이것이 칼빈이 제네바의 부름을 받을 당시의 제네바의 사회적 환경이었다. 그러므로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제네바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련의 과정은 곧 제네바 국가의 긴요한 현안이기도 했다. 따라서 제네바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도 교회와 국가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갖게 되었다. 칼빈은 이런 제네바에서 신앙의 지도자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당시 제네바 사회의 변혁은 칼빈의 설교를 통한 방법과 동시에 칼빈이 수립한 콘시스토리(Consistory)를 통한 강력한 교육적 기능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

요컨대 16세기 제네바는 로마 가톨릭과 사보이 공국에 저항하면서 정치적 독립을 쟁취했다. 물론 베른이 제네바를 식민지화 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없지는 않았지만 제네바는 독립된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제네바의 새 정부는 무거운 전통에 눌려 있지 않은 젊은 정부였기 때문에 칼빈이 추구하던 기독교 신앙이 어렵지 않게 수용되어 독특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다.

16세기 제네바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체적으로 불안정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525년부터 제네바는 교회와 사회 모두에서 근원적인 변혁의 과정을 겪고 있었다. 그러다가 1546년을 지나면서 제네바 교회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되기 시작했으며 정치적으로도 민주적인 변화를 겪고 있었다. 1555년 선거에서 칼빈의 지지하는 4명의 대의원이 선출된 이후 제네바는 기독교 신앙과 제네바 사회가 통전적으로 묶일 수 있게 되었다.

## 2. 신학적 토대

칼빈의 신학은 그가 제네바를 기독교적 공동체로 변혁시키기 위한 토대였다. 특히 칼빈은 제네바 도시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갔다. 개혁

18 W.G. Naphy, "The renovation of the ministry in Calvin's Geneva." In *The Reformation of the parishes: The ministry and the Reformation in town and count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3), 113-132. W.F. Graham,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김영배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원저 1971 출판), 35-49.

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은 안으로는 개인적인 죄용서 및 구원과 관계되는 교회 중심의 영적인 나라와, 밖으로는 인간의 사회적 삶과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나라와의 관계라는 동심원적 구조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의 전망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19</sup> 이런 신학적 기초 위에서 특별히 본 세미나의 주제인 도시선교와 관계해서 칼빈의 제네바 도시 선교의 신학적 토대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하나님 나라와 공적 사회

칼빈은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외적인 통치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국가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사회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칼빈의 하나님 나라의 동심원적 구조 가운데 외부로 향하는 원심력의 방향이다.<sup>20</sup>

칼빈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니교가 육신을 불결하다고 본 것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성별하신 몸을 언급하면서(고전 3:16), 육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혼뿐 아니라 몸으로도 주를 섬기라고 했던 바울을 인용하면서(고전 6:20) 몸으로도 주를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몸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칼빈은 육의 세계를 다스리는 국가도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다는 주장으로 나가는 발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sup>21</sup> 칼빈은 인간의 육체는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최후에는 몸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육신의 세계를 통치하는 국가 또한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되며,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22</sup>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단지 제네바의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제네바 도시 안에서도 나타난다.

19 안인섭, “개혁주의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바라보는 아시아 교회,” 아시아교회 정책연구소 제1차 정기 컨퍼런스 (2023.9.16.), 9-15.

20 Calvin, *Institutes*, 3.19.15, CO 2, col. 623. “ne quod de spirituali libertate docet evangelium, perperam ad politicum ordinem trahamus, ac si minus secundum externum regimen humanis legibus subiicerentur Christiani, quia solutae sunt coram Deo ipsorum conscientiae: quasi propterea eximerentur omni carnis servitute, quod secundum spiritum liberi sunt.”

21 Calvin, *Institutes*, 3.25.7-8, CO 2, cols. 736-740.

22 Calvin, *Institutes*, 3.25.8, CO 2, cols. 738-740.

## 2) 신앙과 삶의 통전성

칼빈의 기독교 신앙 교육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요 아는 것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다.<sup>23</sup> 기독교 신앙 교육의 교과서와 같은 것이 성경인 것이다.<sup>24</sup>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유지시켜 주는 근간이 된다. 칼빈에 의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인간은 성경을 통해 기독교 교육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5</sup>

칼빈의 사상의 특징 중 하나는 신앙과 삶, 혹은 신학과 경건의 통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칼빈이 말하는 신앙은 그저 지적으로 아는 것이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다. 보다 통전적인 사고가 요청된다. 칼빈은 이 점에 대해서 복음의 능력은 인간의 마음을 관통해서 영혼 안에 자리를 잡고 인간 전체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26</sup>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 관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 교육은 신학적 구조적인 면에서 제네바 사회와 직접 연결되게 되는 것이다.

### (1) 이웃을 섬기는 삶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서로 협력하고 나보다 남을 더 수용해야 할 이유로서 칼빈은 하나님의 창조를 제시하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오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다.<sup>27</sup> 이웃의 삶을 돌아보는 삶은 곧 “자키의 허물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sup>28</sup> 칼빈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할 때 그는 자아를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서 자아를 전적으로 바쳐야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까지 강력하게 기술하고 있다.<sup>29</sup>

기독교 신앙이 이웃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이 정도로 강조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웃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이다. 칼빈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몸의 지체는 그 자체를 위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다른 기관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환기하고 있다. 그러

23 Calvin, *Institutes*, 1,6,1.

24 Calvin, *Institutes*, 3,2,6.

25 Calvin, *Institutes*, 1,7,6; 1,9,6

26 Calvin, *Institutes*, 3,6,4.

27 Calvin, *Comm. Gen.* 1: 28.

28 Calvin, *Institutes*, 3,7,4.

29 Calvin, *Institutes*, 3,7,5.

므로 칼빈의 관점에서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면 “교우들을 위해서 일할 줄 알아야 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성장을 위해서 전심 전력하는 이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돌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sup>30</sup>

## (2) 청지기 정신

위에서 우리는 개인은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이웃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칼빈은 한 층 더 센 목소리로 그리스도인들의 소유하고 있는 은사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음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은사를 타자의 이익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위탁하셨다고 보는 것이다.<sup>31</sup>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웃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르셨다. 이 청지기의 유일한 자격 조건은 바로 사랑이다.

이때 칼빈에게 있어서 이 사랑이란 자아와 타인 모두의 유익에 부합되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타자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칼빈은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서 청지기 정신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 3) 거룩한 도시

칼빈의 사상과 제네바 시 공동체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세 번째 신학적 개념으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도시를 제시할 수 있다. 칼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 안에서 회복된다고 보았다. 개인의 영적인 생활은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타인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칼빈은 제네바 안에서 권징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타락하여 오염된 개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킴으로, 타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오염을 막아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빈이 강조하는 권징은 “거룩한 공동체”를 확립하기 위한 칼빈의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칼빈이 볼 때 참된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찬이 이행되어야 한다.<sup>32</sup> 칼빈은 더 나아가 권징을 교회의 열쇠의 권세와 영적 재판권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30 Calvin, *Institutes*, 3, 7, 5.

31 Calvin, *Institutes*, 3, 7, 5.

32 Calvin, *Institutes*, (1536), II, B, 29.

도리가 교회의 영혼인 것처럼, 권징은 몸의 지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제 자리를 지키도록 해 주는 근육의 역할이라고 보았던 것이다.<sup>33</sup> 칼빈은 권징이 교회 구성원들 간의 교제의 끈을 강화시켜 준다고 믿었다.<sup>34</sup>

제네바에 이 컨시스토리가 세워진 것은 1541년 “교회 규칙(Ecclesiastical Ordinances)”에 근거하여 1542년에 칼빈이 요청함으로 성립된 것이다. 이 컨시스토리는 영향력 있는 교육 및 상담 기구였으며 더 나아가 법정과 같은 기능까지 했다.<sup>35</sup> 제네바의 컨시스토리 기록은 제네바에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칼빈이 볼 때 사회의 발전은 제네바 시민 개개인의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신앙은 사회와 관계를 갖는 실천적인 영역이 된다.<sup>36</sup> 따라서 칼빈은 제네바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징권이 교회에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고,<sup>37</sup> 제네바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칼빈은 제네바에 컨시스토리를 세워 권징을 통해서 제네바를 거룩한 공동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sup>38</sup>

### 3. 제네바 도시선교의 구체적 실천

칼빈의 사상은 16세기 제네바 도시를 기독교적 공동체로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제네바라는 도시국가적 상황 속에서 교회와 국가 모두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주장하고 있었던 칼빈에게 제네바가 기독교 공동체로 수립되는 것은 당연한 목표였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드러난 칼빈의 사상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에서 출발했다. 이 신학은 신앙과 삶,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를 배타적으로 분리시키지 않으면서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부정하고 사회적으로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칼빈의 사상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교육적으로 실제화될 수 있었는지 중요한

33 Calvin, *Institutes*, 4,12,1.

34 W. Mueller, “The renovation of the ministry in Calvin’s Geneva,” In *The Reformation of the parishes: The ministry and the Reformation in town and count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54), 116.

35 R.M. Kingdon, *Adultery and divorce in Calvin’s Genev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95), 1-6.

36 W. Balke,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 trans. W. Heynen (Grand Rapids: Eerdmans, 1981), 223.

37 Calvin, *Institutes*, 4,10,27.

38 Calvin, *Comm. Acts*, 21:18.

질문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라는 교육 기관과 “컨시스토리”라는 삶의 교육 기구를 수립하여 그 교육적 기능을 수행했다.

### 1) 제네바 아카데미

칼빈이 제네바에 초청되어 개혁 운동을 시작하기 이전 13세기에도 제네바에는 열악한 학교들이 있었고,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반짝 공립학교가 수립된 바 있었지만 제네바에서 본격적인 기독교 교육이 시작된 것은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가 수립된 1559년 이후다.<sup>39</sup>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통해서 인문주의적인 기독교 교육을 충분히 받은 목회자들과 기독교적 사회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으며 이 학교는 이후 네덜란드와 독일과 스코틀랜드 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칼빈은 제네바 아카데미를 창립하기 이전인 1556년에 프랑크푸르트를 방문하는 중간에 스트라스부르를 방문하여 이곳의 아카데미 학장이었던 장 스투름을 만나서 제네바 아카데미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다.<sup>40</sup> 그러나 제네바 아카데미의 이념은 이미 1541년의 교회령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 교회령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언어와 인문교육을 받아야만 목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목적을 위해서 대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다른 고등 교육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네바 아카데미는 일반적인 의미의 기독교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기도 했다.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는 초중등 과정으로서의 스킨라 프리바타(schola privata)와 고등 과정인 스킨라 푸블리카(schola publica)로 조직되어 있었다. 스킨라 프리바타 과정은 로마 시대의 라틴학교와 같이 일반적으로 프랑스어와 라틴어와 그리스어 등과 논리학 변증학 문학 등을 교양 과목으로 가르쳤다. 그러나 고급 과정이었던 스킨라 푸블리카에서는 비록 당시 로마 교황청이나 신성로마제국과 무관했기 때문에 학위를 줄 수는 없었지만, 히브리어, 그리스어, 신학, 그리고 예술 등에 교수좌가 있어 수준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이 스킨라 푸블리카 과정은 카린 막이 강조한 것처럼 지적 훈련과 함께 도덕적인 훈육이 병행되고 있어서 유럽의 개신교 대학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sup>41</sup> 이 두 과정은 교육 개혁에 있어서 인문주의에 대한 칼빈의 관심이 얼마나 큰가를 그대로 보여주

39 조성국, “칼빈에게 있어서 학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30, 116-119.

40 W. de Greef, *The writings of John Calvin: Expanded edition, an introductory guid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41 K. Maag., *Seminary or university? The Genevan academy and Reformed higher education, 1560-1620* (Aldershot: Ashgate, 1995), 8-84.

고 있다.<sup>42</sup>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살펴보면 칼빈이 지향하는 기독교 공동체의 목표를 파악할 수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제네바 교회를 이끌어 갈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신학 공부에서 인문학적 훈련이 본질적으로 중요했다는 것이며, 결국 사회 속에서 전인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는 기독교인 양성이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기독교 신앙 교육이라는 것이 성경과 교회에서 시작하여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 까지 관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독교 교육은 제네바 도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컨시스토리

기독교 교육 사상을 제네바 도시와 매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적 장치는 컨시스토리였다. 제네바의 종교개혁 운동은 정치 및 법과 종교의 측면 모두에서 적용된 것이었다. 컨시스토리는 16세기에 종교개혁 도시가 된 제네바 시민들의 일상의 생활에 대해서 적절하게 기독교적 지도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실행을 위해 필수적인 매체였다. 컨시스토리에서 진행되었던 권징은 교육적 효과를 강화시키는 보조적인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제네바 도시 삶에 적용하려는 것이다. 이 컨시스토리는 1541년 칼빈의 '교회 규칙서'에 의해 만들어진 새로운 기관이었다. 말하자면 모든 제네바 사람들이 설교와 법령들에 표현된 새로운 개혁주의 가르침을 그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말이다.<sup>43</sup> 이런 의미에서 컨시스토리는 칼빈의 기독교 사상을 제네바 도시 전체에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1555년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실제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이후에 이 컨시스토리는 판단을 위한 심리 재판소로, 상담의 봉사 기관으로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감당했다. 말하자면 16세기 제네바에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차원을 관통하고 있었던 것이 이 컨시스토리였다. 컨시스토리는 당시 제네바의 교인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까지 관련되어 있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결백한 사람, 그리고 학대받는 사람들의 실제적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었다. 컨시스토리 기록들은 16세기 중반기 개신교 도시국가가 된 제네바 시민들의 모든 가정 생활과 그 삶의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는 독특한 창이다. 특히 매년 이 컨시스토리에서 다루어진 수 백 개의 사례들 가운데 사실

42 오형국, 『칼뱅의 신학과 인문주의』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6), 213-257.

43 안인섭, 『칼빈』 (서울: 익투스, 2015), 221-233.

상 절반 이상이 가정 생활에 대한 것이었다.

제네바 시민들의 신앙적인 삶을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는 주체인 컨시스토리는 칼빈이 직접 1541년 교회법을 통해 창설한 것이었다. 이 컨시스토리의 목적은 기독교인들의 훈육(discipline)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네바 시민들이 진정한 기독교적 믿음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이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시의회와의 갈등으로 스트라스부르그로 옮겨 가 있었는데, 제네바가 다시 그를 초청했을 때 이 컨시스토리와 같은 기관을 만들지 않는다면 제네바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빈에게 있어서 컨시스토리는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컨시스토리는 약 24명으로 구성되었다. 그것을 관장하는 것은 그 해에 선임된 네 명의 행정장관 중의 한 명이었다. 컨시스토리의 멤버들은 두 개의 트랙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제네바와 인근 마을들에서 안수 받은 교회의 목사들이다. 칼빈은 이들의 의장(moderator)으로 사역했다.

다른 하나는 '장로'(elders)라고 지칭되었던 12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매년 2월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어 목사들과 함께 사역하는 자들이었다. 집사와 장로 둘 다 모두, 대부분의 기존의 다른 위원회의 구성원들이었는데, 소위원회에 의해서 준비된 과정을 통해 선출되었다. 그러나 이 특별한 두 개의 조직체를 위해서 목사들은 후보자를 준비하는데 협의하기로 되어 있었다. 컨시스토리는 일주일에 1회, 목요일 만났으며, 회기 동안 종종 몇 시간을 넘어가기도 하였다.

컨시스토리는 초창기에는 주로 잔재해 있는 가톨릭적인 신앙의 태도를 바꾸려고 많은 시도들을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는 정당하지 못한 사업의 관계들을 뿌리 뽑으려 하였고, 또한 정부와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경시하는 것들을 근절하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컨시스토리에서 목사와 장로들은 제네바에서 살고있는 모든 시민들이 성실하게 가정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종교개혁 당시의 대부분의 도시들과 같이 제네바도 매춘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교개혁 후에 매춘은 폐지되었다. 전문적인 소수의 매춘부들은 아주 조용히 거래하였으며, 다른 공동체로 떠나도록 요구받았고 그들의 여행경비를 위해 약간의 돈이 지불되기도 하였다.

컨시스토리에서 다룬 사안들을 중심으로 1546년, 1552년, 그리고 1557년을 비교해 보면 제네바의 컨시스토리에서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교인들의 삶을 지도한 것의 특징을 알 수 있다.<sup>44</sup> 첫째로,

44 J. J. Witte and R. Kingdon, *Sex, marriage and family in John Calvin's Geneva* (Grand Rapids: Eerdmans, 2005), 75-76.

컨시스토리에서 다른 사안들의 약 60%가 성, 결혼, 가정에 대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영적인 엄격함이 후에 더욱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1546년에는 대부분의 일반적 구제책은 당사자가 더 잘하도록 권면하거나 많은 경우에는 짧은 훈계로 끝났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역은 더욱 강화되었다. 셋째로, 컨시스토리에서는 적어도 회개와 화해를 위한 가능성(*locus poenitentiae*)을 내포하는 무거운 금지의 사용을 기꺼이 시행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컨시스토리는 그 삼 년의 각각의 사안들을 영적인 방법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이 삼 년의 예에서 가정과 관계된 문제의 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것은 도시의 인구 증가와 장로들이 컨시스토리에서 다른 일들의 증가하는 숫자와 비교하면, 그런 문제에 대한 컨시스토리의 영향력이 점차 증가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즉 제네바 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실제로 장로들의 사역에 의해서 유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는 교리교육을 내면화하여 삶에 적용시켰으며, 새로운 학교들, 커리큘럼들, 수업도구들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컨시스토리는 사생자, 유기된 사람과 학대 받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피난처를 제공했으며, 학대 받는 부인들과 가난하게 된 과부들에게 새로운 보호처를 제공하기도 했던 것이다.

### 3) 제네바 교회와 사회 복지 : 종합구빈원과 프랑스 구호기금

16세기 사회복지 사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구체적 사례로서 제네바 도시 국가를 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곳의 개혁은 매우 급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6세기에 프랑스에서는 국가가 대대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는데, 이들은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제네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모여들어 난민이 대거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제네바는 가톨릭을 후원하는 이탈리아의 사보이로부터 개신교를 주창하는 도시 국가로 이제 막 정치적인 독립을 획득했기 때문에 박해 받던 개신교도들은 난민이 되어 이 제네바로 모여들었다. 이것이 칼빈이 제네바의 부름을 받을 당시의 제네바의 사회적 환경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던 제네바에서, 개혁 교회가 그 목회적 활동을 한다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첫째, 이 장의 주제와 관련하여, 대거 발생한 프랑스 난민들이 인접한 제네바로 몰려왔고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것은 칼빈의 목회 환경의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것을 목회적으로 풀어야 하는 상황이 주어진 것이

다. 칼빈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의 신념에 따라 성경으로부터 통찰력을 얻어 구체적인 목회적 적용을 하게 되었다.

둘째, 제네바 도시 국가 안에서 교회가 종교개혁의 신학적 정체성을 세우는 일은 국가의 문제이기도 했다. 따라서 사회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두 기관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갖게 되었다. 즉 사회 복지 활동은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고, 동시에 국가의 의제이기도 했다. 제네바의 자선은 국가의 법에 의해 성립되었다. 신학적으로 보면 개혁주의의 자선 사업은 필연적으로 교회론적인 문맥에서 찾아진다. 이점은 사회 복지 문제에 있어서 제네바의 모델이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된다.

칼빈의 이상은 좀 더 넓게 교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는 제네바에서 최고의 설교적 영향력을 끼쳤고 이와 함께 콘시스토리의 기능을 통해 사회적 윤리적 기능을 형성하였다. 게다가 칼빈과 시 당국은 가난한 자들을 살피는 것과 의무교육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옛 교회의 물건들은 종합구빈원(Hôpital Général)에 조달하고, 프랑스 구호 기금(Bourse Francaise)을 수립함으로써 대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제네바에서는 목회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보게 되었다. 이 체계는 개혁된 사회가 현실을 만든다는 칼빈의 비전을 보여 준다.<sup>45</sup>

요약하자면, 16세기 칼빈이 목회를 감당할 때의 유럽 사회는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사회적 불안과 가난과 질병이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었다. 이것이 새로운 신학으로 무장하면서 등장하고 있었던 개신교회가 실제로 활동을 펼쳐야 하는 삶의 환경이었다. 특히 칼빈은 이런 제네바의 상황 속에서 그 목회적 사역을 감당했다. 따라서 칼빈 당시의 제네바에서 사회 복지는 교회와 국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 제네바에서의 칼빈은 양과 질에서 큰 목회적 변화를 주도했다.

#### IV. 서양의 아시아 진출의 역사

이상에서 도시선교에서 칼빈의 제네바가 중요한 모델이 된다는 점을 고찰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이 도시선교 모델이 아시아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될 수 있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하

45 W. G. Naphy, “The Renovation of the Ministry in Calvin’s Geneva,” 121–128.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몇가지 고려해야 할 아시아의 역사적 선교적 특징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sup>46</sup>

아시아는 드넓은 대륙에 서로 다른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가진 많은 독립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획일화되고 통일된 아시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한 국가나 지역에 대한 설명은 아시아의 다른 국가나 지역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성 가운데 공통적 특성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16세기부터 아시아에 대한 서양의 개입은 아시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급진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서양의 아시아 진출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첫째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아시아에 진출한 1500-1650년의 시기다.
- 두 번째는 네덜란드 시대로서 1595년부터 1700년 사이에 해당된다. 유럽에서 있었던 종교적 갈등은 아시아 선교지에서도 지속되었다.
- 세 번째는 영국의 시대이며 1800-1940년대라고 할 수 있다.
- 네 번째는 프랑스 시대인데 1664-1954로 잡는다. 특히 프랑스는 베트남을 식민지배했다.
- 다섯째는 미국 시기인데 1900-1945 기간이다. 19세기가 팍스 브리타니카라면 20세기는 팍스 아메리카노라고 할 수 있다.
-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일본 시대이며 1941-1945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1940년대와 1950년대 사이에 서구와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얻었다. 그러나 많은 거대한 문제들을 만날 수 밖에 없었다. 이 독립 국가들이 국가 건설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몇가지 있었다.

- 첫째는 모든 분야에서 훈련된 국가 지도자가 엄청나게 부족했다는 것이다.
- 둘째로 아시아 국가의 경제 발전은 여전히 서구 국가에 의존했었다. 대다수의 아시아인들은 부유한 서양 국가들에 비해 가난했다. 공장, 농업 기술, 경제 개발을 위한 자본금과 과학적 지식이 서양

46 Ro Bong Rin, *Asian Church History*, 22-28.

에서 절실히 필요했다. 국가 교회는 교회와 교회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외국 선교부의 재정 지원에 의존했다.

– 셋째는 서양 선교사의 급속한 증가와 그 수의 급격한 감소가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 V. 나오는 글

### : 아시아 도시선교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

각 아시아 국가는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배경에서 다양하며 독특하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서는 공통점도 존재한다. 아시아 문화와 사회 구조를 이해하고 아시아 교회를 아는 것은 아시아 도시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다. 몇 가지로 나누어 아시아의 특징을 살펴보자.<sup>47</sup>

첫째로 아시아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구조를 유지해 왔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의 선교는 그 국가의 지배적 사회구조를 형성했던 종교에 대해 신학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학적이고 경제학적인 분석이 병행되어야 아시아 도시선교에 성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아시아는 전통적으로 계층적 사회를 형성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가 전통 사회와 어떻게 창조적으로 만나서 그 사회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서 노봉린 교수는 필리핀과 한국을 좋은 사례로 제시한다. 필리핀과 한국이라는 두 아시아 국가는 국가적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필리핀은 2022년에 로마 가톨릭 인구가 81.45%, 개신교도가 8.2%였다. 지배적인 로마 가톨릭 문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은 개신교도 인구가 20%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의 하나가 되었다.

셋째는 아시아는 일반적으로 여성이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교육의 기회가 적었다는 것이다.

47 Ro Bong Rin, *Asian Church History*, 28–32.

전통적인 농경 사회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산업화가 되고 기독교가 소개되면서 여성의 지위는 향상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의 도시선교는 아시아의 여성들을 향한 깊은 신학적 성찰과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아시아의 전통 종교는 부패와 뇌물과 같은 도덕적 타락에 유약해 왔다. 아시아의 기존의 종교들은 기복주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위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었고, 권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고통받아 왔다. 따라서 아시아 도시선교에서는 사회정의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고려가 더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 교회가 도시선교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시아 교회가 철저하게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며, 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아시아의 도시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아시아 선교는 아시아 일반 역사와 아시아 기독교 역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좌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아시아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으며 변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선교 역시 보편적인 차원에서 도시선교의 맥락도 고려하는 종합적인 통찰이 필요할 것이다. ㉞

## 발표 II

#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도시 선교와 교회 사역에 관한 연구



배춘섭 교수 Choon-Sup Bae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조교수

## <국문초록>

이 논문은 급속한 도시화와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도시선교와 교회 사역의 역할을 탐구한다.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서 거주하는 현대 사회에서, 교회는 도시선교의 신학적 기초를 이해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본 논문은 성경적 맥락 속에서 도시 중심 선교의 전략적 중요성을 논의하고, 현대 도시의 다원적 문화와 사회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화 전략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도시를 하나님의 정의, 평화, 사랑이 실현되는 종말론적 공간으로 재해석하며,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을 통합하는 교회의 사명을 강조한다. 또한, 도시 환경에서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접근법을 제시하며, 도시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 실현에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 주제어 | 포스트모던, 도시 선교, 상황화, 선교적 교회, 하나님 나라.

| 투고일 | 2024. 12. 30.

## I. 서론

오늘날 급격한 도시화는 세계적 현상이다. 전 세계의 도시가 현대 사회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유엔(UN: United Nations)은 오늘날 지구촌이 도시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밝히면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인구 10명 중 약 6명이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이런 비율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로 증가할 것으로 발표했다.<sup>1</sup> 그리고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에 따르면, 오늘날 아시아 태평양(Asia and the Pacific) 지역에서만 약 7억 5,400만 명의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고 이런 도시민의 숫자는 향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이 기관은 201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무려 인구의 약 43%가 도시에 거주하고, 현재는 전 세계 젊은이가 이 지역에서만 무려 45%나 거주함을 발표했다. 게다가 이 지역의 도시인구 증가는 2050년까지 약 65%로 증가하고 2080년에 이르러서는 아프리카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아시아에 수 많은 젊은 도시인들이 정착해 거주하는 것을 함의한다.<sup>2</sup> 이런 점에서, 아태지역에서의 이 같은 급속한 도시성장은 향후 아시아 선교를 위해 도시선교의 신학적 이해와 실천적 적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방증한다. 이에 따라 교회는 도시선교(urban missio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학적 기초를 토대로 사회-문화적 변화에 맞추어 실천적 사역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도시선교의 신학적 기초를 근거해 변화하는 도시선교의 패러다임을 살핀 후 현대 도시에서 교회가 실천적으로 취해야 할 사역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 II. 도시선교의 신학적 기초

먼저, 도시선교는 성경 속 도시의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성경은 도시를 중요한 선교의 장으로 묘사한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선교적 사명을 상징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었다(시 48:1-2). 또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니느웨라는 큰 도시에서 증거했다(욘 3:2-4).

1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https://www.un.org/en/site-search?query=urban> (2024/12/23).

2 United Nations, *Building Cities of the Future Must Start Today*, <https://www.un.org/en/ac-academic-impact/building-cities-future-must-start-today> (2024/12/23).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사역이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로랜드 알렌(Roland Allen)은 “초대 교회의 선교는 도시를 전략적 기점으로 선택함으로써 복음이 확산되었다”고 주장한다.<sup>3</sup> 이러한 성경적 맥락은 도시선교의 신학적 기초를 강화한다. 예를 들어, 예루살렘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도시가 아니었다. 오히려 종말론적 비전을 담은 도시로 이해되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며, 이는 도시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sup>4</sup> 이러한 성경적 도시관은 도시선교가 단순히 복음전도의 도구적 역할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실재를 증거하는 장임을 강조한다.

둘째, 도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죄의 고통이 존재하는 곳으로도 설명한다. 인간의 죄로 인해 도시는 범죄, 빈곤, 차별과 같은 삶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다. 이것은 도시가 복음화의 중요한 대상임을 의미한다(창 11:4-9). 어거스틴(Augustine)은 그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The City of God)에서 인간의 도성은 탐욕과 자기 사랑으로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도성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드시 증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sup> 이것은 도시선교가 인간의 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현대 도시의 사회구조적 죄는 교회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부각시킨다.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현대 도시의 구조적 불의는 인간의 탐욕과 제도의 왜곡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하며, 교회는 이를 직시하고 변혁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sup> 이런 점에서, 도시선교는 인간이 도시에서 처한 사회윤리적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정의와 평화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셋째, 도시선교에 있어 문화에 대한 신학적 이해이다. 도시는 복음이 전파되고 실현되는 중심지일

3 Roland Allen,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Grand Rapids: Eerdmans, 1962), 45

4 도시선교를 위한 성경적 명령은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8-20)는 대사명을 주셨다. 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든 도시와 지역을 포함하는 보편적 선교명령이다. 초대교회는 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로마와 같은 주요 도시를 선교 거점으로 삼았다(행 13:1-3; 19:1-10). 이런 도시 중심적 사역은 복음 확장의 전략적 모델로 평가받는다. 도시에서 복음이 확산되면 그 영향력은 주변 지역과 더 넓은 사회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학적 관점에서 도시선교를 논의한 저술들은 다음을 참조하라: Eckhard J. Schnabel, “Paul's Urban Strategies: Jerusalem to Crete,” *Stone-Campbell Journal* 10 (2007): 231-260; Eckhard J. Schnabel, *Paul the Missionary: Realities, Strategies and Methods* (Downers Grove: IVP, 2008); Eckhard J. Schnabel, *Early Christian Missi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2004); Timothy Keller, *Center Church: Doing Balanced, Gospel-Centered Ministry in Your City* (Grand Rapids: Zondervan, 2012); Harvie M. Conn and Manuel Ortiz, *Urban Ministry: The Kingdom, the City, & the People of God* (Downers Grove: IVP, 2001); Roger S. Greenway, “Success in the City: Paul's Urban Mission Strategy: Acts 14:1-28,” in *Mission in Acts: Ancient Narratives in Contemporary Context*, eds Robert L. and Paul Hertz Gallagher (Maryknoll: Orbis, 2004); Wayne A. Meeks, *The First Urban Christians: The Social World of the Apostle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Christopher K. Rowe, *World Upside Down: Reading Acts in the Graeco-Roman 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5 Augustine, *The City of God*, trans. Henry Bettenson (London: Penguin Books, 2003), 32.

6 Walter Brueggemann, *The Prophetic Imagin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64.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창조되고 전승되는 장소이다. 그래서 도시는 문화와 예술, 경제와 정치의 중심지로서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는 그의 저서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에서 “그리스도와 문화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풍성하게 한다”<sup>7</sup>고 주장한다. 그는 문화가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이자 표현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가 문화변혁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스토틀 역시 도시의 문화적 현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회가 문화변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 기독교인』(The Contemporary Christian)에서 “도시의 문화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반영된 장소로서, 교회는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sup>8</sup>고 지적했다. 그런 점에서, 스토틀는 도시의 문화 속에서 교회가 사회적 정의와 화해 그리고 사랑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회로 이했다. 따라서 이런 신학적 이해는 도시의 문화적 다양성이 복음의 메시지를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사회적 정의 실현과 공동체적 화해에 관한 신학적 이해이다. 도시는 다양한 인종, 계층, 종교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갈등과 분열이 발생하기 쉽다. 이것은 교회가 사회적 정의를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이슈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정의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의 표현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라이트는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 모든 영역에서 올바름과 공정함을 세우는 것을 포함하며, 이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기초한다”<sup>9</sup>고 말한다. 그는 구약성경의 예언자적 전통에서 정의와 공의를 강조한 미가서 6장 8절, 아모스서 5장 24절과 같은 본문 등을 근거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스토틀 또한 “사회적 정의는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야 하며, 이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 그는 사회적 정의 실현이 단순히 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필수적 행위임을 강조한다.

특히 화해에 관해서라면, 화해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적으로 정의를 실현함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스토틀는 화해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구속적 사역의 중심”<sup>10</sup>으로 이해하며,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하

7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1951), 75.

8 John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2), 114.

9 Christopher J.H. Wright,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4), 252.

10 John Stott, *The Cross of Chris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6), 219.

나눔과 인간의 화해가 가능케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크리스토퍼 라이트(Christopher J.H. Wright)는 공동체의 화해에 대해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은 모든 민족과 공동체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sup>11</sup>이라고 이해한다. 이렇듯 라이트는 공동체적 화해의 과정을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연결하면서 그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별히 스탠리 하우워(Stanley Hauerwas)는 교회가 도시에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적 모델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교회는 도시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 화해와 사랑의 대안을 제공해야 함을 강변한다.<sup>12</sup> 이것은 교회가 공동체적 화해의 모델을 구현해 도시를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있음을 각인시킨다.

끝으로, 도시선교의 근본적인 신학적 배경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이며, 하나님의 통치, 정의, 평화, 그리고 사랑이 실현됨을 의미한다(마 6:10). 조지 래드(George E. Ladd)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실재”로 정의하면서 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sup>13</sup> 그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소위, “이미와 아직”(already and not yet)의 종말론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sup>14</sup> 또한 N.T. 라이트(N.T. Wright)는 하나님 나라를 미래에 완성될 종말론적 실재로 이해한다. 그는 “하나님 나라가 종말의 약속이며,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통해 완전한 형태로 실현될 것”<sup>15</sup>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도시선교에서 교회의 종말론적 역할을 정의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종말론적으로 도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장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존 스토틀(John Stott)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인간의 삶과 모든 삶의 영역을 포괄한다면, 이는 도시선교에 있어서 경제적 불평등, 주거 문제, 환경 문제 등 도시의 구체적 이슈들을 마땅히 다루어야 한다고 시사한다.<sup>16</sup> 다시 말해, 스토틀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까지 그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7</sup>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의 개인 구원뿐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을 뜻한다. 따라서 복음전도와 더불어

11 Christopher J.H. Wright, *The Mission of Go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6), 310.

12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112.

13 George E. Ladd, *The Gospel of the Kingdom* (Grand Rapids: Eerdmans, 1959), 19.

14 Ladd, *The Gospel of the Kingdom*, 123.

15 N.T. Wright, *Simply Christian* (London: SPCK, 2006), 204.

16 Stott, *The Contemporary Christian*, 27.

17 John Stott,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Grand Rapids: Zondervan, 1984), 23.

사회적 책임의 통합적 비전은 교회가 도시선교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을 제공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 III. 변화하는 도시선교의 패러다임

#### 1. 도시 교회에 모더니즘이 끼친 병폐

대부분의 기독교 교파는 계몽주의 전제들 가운데 발전했다. 물론 계몽주의 이전에 존재했던 교회들도 모더니즘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오늘날 많은 도시 교회가 포스트모던의 도전 앞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sup>18</sup> 현대의 도시 선교는 기독교 교회를 무가치한 기관, 이윤 추구의 사업체, 혹은 세상과 분리된 극단주의 집단 정도로 인식하는 세속화된 문화와 마주하고 있다. 사실 모더니즘이 교회에 끼친 영향은 필연적으로 여러 결과를 초래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모더니즘 시대의 흐름을 따랐는데, 피터 버거(Peter Berger)는 이를 가리켜, “기독교 교회는 모더니즘 세계가 부상하는데 기여했고, 모더니즘의 세계는 다시 기독교 교회를 약화시키는데 일조했다”<sup>19</sup>고 언급했다. 예컨대, 계몽주의의 가치는 개인주의, 이원론, 과학적 경험주의로서 오랫동안 교회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았다.<sup>20</sup> 이렇듯 모더니즘을 통한 19세기 낙관주의와 진보에 대한 신념은 서구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모습을 갖추었다.<sup>21</sup>

그 결과, 교회는 점차 파송 받은 선교적 공동체로서의 독창성을 상실했다. 모더니즘 시대의 선교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닌, 교회의 여러 측면 중 하나로 축소되고 말았다. 대럴 구더(Darrell Guder)는 이를 가리켜, “우리 서구 전통교회의 구조나 신학은 선교적이지 않다.”<sup>22</sup>로 설명한다. 왜냐하면 그는 서구 교회가 모더니즘의 유산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더니즘은 교회의 개인화를 촉진했고, 선교의 개인화도 초래했다. 오르티스(Manuel Ortiz)는 다음과 같

18 Alister E. McGrath,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2001), 89–93.

19 Peter L. Berger, *The Social Reality of Religion*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1973), 132.

20 Dan Kimball, *The Emerging Church: Vintage Christianity for New Generations* (Grand Rapids: Zondervan, 2003), 49.

21 Wilbert R. Shenk, “The Culture of Modernity as a Missionary Challenge,” in *The Church between Gospel and Culture: The Emerging Mission in North America*, ed. George R. Hunsberger and Craig Van Gelder (Grand Rapids: Eerdmans, 1996), 70.

22 Darrell L. Guder,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8), 5.

이 설명한다. “19세기에 선교는 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 개인의 사명으로 이해되었다. 교회 전체가 아닌 개인이 선교의 전선에서 각성되고, 이로 인해 선교는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초점이 맞춰졌다.”<sup>23</sup> 그래서 니얼 머피(Niall Murphy)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모더니즘의 개인주의는 복음전도를 거의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구조적인 악보다는 ‘개인적’ 죄에 보다 집중하도록 기독교의 도덕성을 형성시켰다.”<sup>24</sup> 이렇게 모더니즘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단순히 개인주의 차원으로 축소시키고, 사회적 정의보다는 복지 활동에 더 편안함을 느끼도록 교회를 이끌었다.<sup>25</sup>

더욱이 도시선교에 모더니즘이 끼친 영향은 기독교적 이원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원론은 도시 내에서 개인적인 회심을 추구했지만, 도시의 밀집적 현상에는 완전히 등을 돌려 무관심했다. 이러한 반(反)도시적 태도는 결국 복음화와 사회적 변혁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sup>26</sup> 더 나아가, 반도시주의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환원 운동을 촉발시켰다. 이런 운동은 도시의 흔적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자연, 즉 광야에서 교회 공동체의 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나아갔다.<sup>27</sup> 결국 도시를 외면한 선교적 접근은 복음의 사회적, 공동체적 차원을 약화시켰고, 도시 내에서 변혁적인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2. 포스트모더니즘과 급변하는 현대 도시

오늘날 지구촌의 인구 대부분은 도시와 대도시에 거주한다. 현대인은 급변하는 도시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살아간다.<sup>28</sup>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도시들은 경제, 정치, 문화와 관련된 예상치 못한 변화를 경험했다. 도시는 더 이상 공간과 시간의 중심 영역에 위치하지 않게 되었다. 도시는 초-중심화이자 탈중심화를 경험하고, 내재적이지도 초월적 존재로 변화했다.<sup>29</sup> 더구나 세

23 Manuel Ortiz, “The Church and the City,” in *The Urban Face of Mission: Ministering the Gospel in a Diverse and Changing World*, ed. Manuel Ortiz and Susan S. Baker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2002), 47.

24 Nancey Murphy, “Missiology in the Postmodern West: A Radical Reformation Perspective,” in *To Stake a Claim: Mission and the Western Crisis of Knowledge*, ed. J. Andrew Kirk and Kevin J. Vanhoozer (Maryknoll, NY: Orbis, 1999), 101.

25 Conn and Ortiz, *Urban Ministry*, 57.

26 David Claerbaut, *Urban Ministry* (Grand Rapids: Zondervan, 1983), 16–17.

27 Conn and Ortiz, *Urban Ministry*, 58.

28 Philip Berryman, *Religion in the Megacity: Catholic and Protestant Portraits from Latin America* (Maryknoll, NY: Orbis Books, 1992), 147–167.

29 Dale T. Irvin, “The Church, the Urban, and the Global: Mission in an Age of Global Cities,”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33(4) (2009): 177.

계 도시들은 다른 지역의 도시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해당 지역을 뛰어넘어 새로운 문화와 접촉하고 교류하게 되었다. 더욱이 글로벌 도시들은 인간의 정착지이면서도 여행지로서, 주거지이면서도 이동장소로서 통로와 같은 양면적 존재로 발전했다.<sup>30</sup> 도시와 세계는 점점 서로 융합되었으며, 소위 “도시의 세계화 현상”이 도래했다. 이런 도시화의 변화는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도시선교와 관련해 어떠한 변화를 불러왔는가?

먼저, 도시에 있어 탈근대화과 탈지역화의 변화를 가져왔다. 20세기의 도시화 현상은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인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근대 시대가 끝나고 탈근대/탈식민 시대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세계화가 도래했다. 근대/식민 도시의 개념은 탈근대/탈식민 도시, 또는 “세계화의 도시”로 대체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일부 도시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전 세계 모든 도시가 세계화의 과정에 합류했으며, 도시는 더 이상 지역 기반의 사회에 매이지 않고 전 세계를 아우르게 되었다.<sup>31</sup> 게다가 탈근대화과로 인해 급변하는 세계 도시는 글로벌 경제와 기술을 겸비한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는 거대 도시들이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서 지구촌 전역의 방향성, 생산성, 관리 기능을 집중시킨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 거대 도시들은 단순히 그 규모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디어 통제, 권력의 실제적 정치, 상징적 의미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2</sup>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세계관에 대응하는 새로운 인식체계를 가져왔다. 모더니즘의 세계관은 계몽주의에 기초해 자연과 이 세상의 구조가 이성(reason)과 과학(science)을 통해 발견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는 과학기술을 통해 얼마든지 자연과 세상을 지배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발전과 불가피한 진보를 성취한 것이라는 낭만주의적 사고이자, 유토피아적 태도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번성하며 모더니티 세계관이 낙관주의, 진보, 객관적 지식과 과학에 대한 신념에 대해 강하게 도전하자, 도시는 탈산업화와 더불어 글로벌 통합의 현상을 띄기 시작했다.<sup>33</sup> 그리고 각 도시는 타 도시와의 경쟁을 위해 국제 자본을 유치하고 세계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세계화가 도시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함의한다. 클레버 곤잘브스(Kleber de

30 Irvin, “The Church, the Urban, and the Global,” 177.

31 Saskia Sassen, “The Global City: Introducing a Concept,” *The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11(2) (2005): 27–43.

32 Manuel Castells,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Malden, MA: Blackwell, 1996), 403–404.

33 Saskia Sassen, “The Global City: Strategic Site/New Frontier,” in *Democracy, Citizenship, and the Global City*, ed. Engin F. Isin (New York: Routledge, 2000), 48–61.

O. Gonsalves)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세계 역사에서 모더니티 시기가 시작되면서 도시들은 오늘날 산업화 되고 도시화 된 사회를 탄생시킨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변화를 이끄는 주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동시에, 현대 서구 세계의 도시화 되고 세계화된 맥락은 포스트모던 상황이 등장하고 확장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을 제공했다.”<sup>34</sup> 따라서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 인식 전환은 종래의 교회가 추구했던 선교의 사역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 3.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과 도시선교의 위기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으로 인해 도시의 상황은 급변했다. 과거 공간적 이미지의 도시는 초국가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도시로서의 트렌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도시화 과정이 진행중이며 물질적, 가상적 현실이 혼합된 새로운 형태로 전 세계의 도시 거주자들과 여행자들을 연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도시를 특징짓던 계급과 문화적 차별은 글로벌 도시에서 더욱 가속화되고, 다양성(Diversity)과 다형성(polymorphism)을 심화하는 동시에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격차를 천문학적으로 확장시켰다.<sup>35</sup> 이런 상황 속에서, 켈러는 오늘날 미국의 도시 교회가 겪는 문화적 위기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 믿음으로 의롭게 됨, 속죄, 가정과 교회에서 성(性)의 역할, 예배 드리는 방법, 전도 방법에 대한 싸움을 보고 있으며, 교회의 본질과 사역에 대한 수많은 논쟁도 목도하고 있다. 그런 다음 하나님 나라의 의미, 하나님의 본성(예: 열린 유신론과 사회적 삼위일체), 바울에 대한 새 관점, 교회 사명의 목표, 인식론과 진리의 본질에 관한 문제를 둘러싼 의문에 대한 보다 학문적인 토론을 벌인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다양한 교리적 분쟁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문제 아래에는 그리스도인이 주변 문화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숨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sup>36</sup>

또한 로버트 풋남(Robert D. Putnam)과 데이빗 캠벨(David E. Campbell)은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

34 Kleber de Oliveira Gonsalves, “A Critique of the Urban Mission of the Church in the Light of an Emerging Postmodern Condition,” (Ph.D. diss, Andrews University, 2005), 162.

35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The State of the World's Cities, 2004/2005: Globalization and Urban Culture* (London and Sterling: Earthscan/UN-Habitat, 2004), 5.

36 Keller, *Center Church*, 181.

인이 지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952년 미국인의 75%는 종교가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로 답했지만, 1970년대 중반에는 그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교회 참석률은 1958년 인구의 약 50%에서 1960년에는 약 40%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기록된 가장 빠른 감소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대의 교회 참석률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1957년에는 그 연령대의 51%가 교회에 다녔고, 1971년에는 그 수가 28%로 떨어졌다.<sup>37</sup>

이 같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한 인식적 전환 아래, 도시 교회는 몇 가지 도전적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데일 어빈(Dale T. Irvin)은 그의 아티클, “The Church, the Urban, and the Global: Mission in an Age of Global Cities.”(2009)에서 오늘날 글로벌 도시들이 맞은 위기에 대해 네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세계화라는 도시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선교지의 탈영토화이다. 세계화에 따른 도시화는 기독교가 더 이상 특정적 영토 내지는 문화적 정체성과 동일시하지 않게 한다. 오히려 선교지를 북미의 기독교 지역과 지구촌 남반부와 동반부 등의 지역적 선교지 개념을,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는 광범위하고 통합적으로 재편하고 다문화의 복합적인 요구에 대응하도록 변형시켰다.

둘째, 선교지 탈영토화와 관련된 문화적 구체화 현상이다. 모더니즘에서 문화는 종종 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고착적 개념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 기반의 문화는 더 이상 안정적이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에 강하게 도전하며, 과거의 문화와 전통을 고정된 개념으로 수용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현대 도시 교회는 초자본주의, 인터넷, 대형교회, 국제 이주민 등과 같은 유동적이고 다양한 사역을 요구받는다.

셋째, 탈권위적 현상으로 인한 성경 권위의 도전이다. 급변하는 세계화와 현대 도시 속에서, 전통적인 신학과 성경 자체의 권위도 불안정해지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누군가는 성경을 독자-중심적 해석으로 초맥락성(translocationality)을 부여하려는 충동을 겪는다. 이것은 성경해석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문맥과 관계없이 원-저자의 의도를 넘어서는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끝으로, 탈종교적 현상으로서 종교다원주의와 탈기독교에 대한 위기이다. 세계 각지의 글로벌 도시들은 다문화적, 다원적 종교 시대를 맞아 전례 없이 타 종교와의 교류를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상황

37 Robert D. Putnam and David E. Campbell, *American Grace: How Religion Divides and Unites U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10), 97-99.

에 접해 있다. 사실 기독교 초기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 교회들은 종교적 다원주의를 현실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이에 비해, 서구에서는 기독교가 지배적이었으나 종종 다수의 기독교 이단이 변칙적으로 주류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것은 타종교나 무신론자와 같은 비기독교적인 이웃과 공존하며 새로운 생활방식의 상황에 직면함을 뜻하며, 다변화된 상황 속에서 그에 따른 복음전도와 선교사역의 변화가 요구됨을 의미한다.<sup>38</sup>

#### IV. 현대 도시와 교회의 선교사역

현대 사회는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회의 선교 사역에도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알버트 몰러(Albert Mohler)는 오늘날 도시선교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변한다. “지난 300년 동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오직 3%의 사람만이 도시에 살다가, 오늘날엔 80%의 사람들이 도시 지역에 사는 세상으로 변했다. 만일 기독교 교회들이 도시 사역의 새로운 양식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시 바깥에 나가서 도시 안을 쳐다보게 될 것이다.”<sup>39</sup>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인구의 다양성과 사회적으로 복잡한 도시 환경의 문제들 가운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사역의 전략을 재정립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다. 이것은 현대 문화의 복잡성과 다변성으로 인해 교회가 더 이상 전통적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독특한 도시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새로운 선교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sup>40</sup>

##### 1. 현대 도시의 선교적 과제

도시선교의 일선에서 사역하는 모세스 아우디는 그의 아티클, “The Models, Challenges and Prospects of Urban Mission”(2008)<sup>41</sup>에서 현대 도시가 지닌 선교적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38 Irvin, “The Church, the Urban, and the Global,” 179–180.

39 “From Megacity to ‘Metacity’—The Shape of the Future,” <https://albertmohler.com/site-search/?keywords=from+megacity+to+metacity> (2024년 12월 28일 접속).

40 Keller, *Center Church*, 15.

41 Moses Audi, “The Models, Challenges and Prospects of Urban Mission,” *Practical Theology* 1 (2008): 22–26.

- 기독교의 특수성 유지: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와 세계화는 진리의 상대성을 요구하기에 도시 선교에 있어서 이원론과 상대주의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특수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 예배와 전례에 있어서 보수와 자유주의 간의 긴장 해결: 도시 사회는 진리와 전례의 형식에 관한 의견이 다양하기에 복음의 핵심을 지키면서도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종교적 다원주의: 도시는 새로운 종교운동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크리스람(Chrislam), 크리스라함(Chrislaham), 사탄교회(Church of Satan), 사후교신의 종교(Necromancy) 등의 신흥종교들은 도시에 등장하고 있다.
- 형식의 도전: 대부분의 종교는 형식(Form)에 가치를 두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왜곡된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은혜보다 행위에 근거한 가치를 가르침을 전할 위험이 있다.
- 사회적 다원주의: 도시는 경제적 불평등과 규율, 민족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다원성이 내재된다. 이런 특성은 상황화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며, 공동체를 어떻게 재분화 할 것인지 고민하게 하며, 신자들의 연합과 일치를 유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사회적 약자나 다원성을 지닌 자들을 위한 특화된 교회의 사역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도시의 이주민: 도시 교회는 이주민을 위한 사역을 관심을 지녀야 한다. 그들은 생존과 화평이라는 사회적 안정을 추구한다. 이것은 교회의 선교 대상이 문화적으로 다양화되고, 비정기적인 불규칙한 청중을 위해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에 관한 과제를 제시한다.<sup>42</sup>
- 사회적 문제: 도시의 계속되는 인구증가와 생계를 위협하는 가난과 빈민의 문제, 빈부격차, 서구의 상대주의로부터 기인한 자유로운 성(性) 개념과 결혼관 등의 변화는 대응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 사회적 구성집단의 붕괴: 가장 작은 사회 단위는 가족이다. 하지만 도시화와 현대화로 인해 가족은 점점 붕괴되고 있다. 가족 붕괴로 인해 교회는 가족 단위의 동질집단을 목표로 선교대상을 삼기 보다 어려워졌다.

42 국제 이주민과 난민, 실향민 등의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라;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www.un.org/-development/desa/pd/](http://www.un.org/-development/desa/p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https://www.iom.int/>;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ww.oecd.org/](http://www.oecd.org/);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ww.ilo.org/](http://www.ilo.org/);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www.unhcr.org/](http://www.unhcr.org/); United Nations Network on Migration: <https://migrationnetwork.un.org>

- 세계화: 세계화의 도시에서 다원주의와 상대주의는 기독교의 신앙고백을 약화시킨다. 세계화는 교회를 탈신앙고백의 시대로 이끌었는데, 이는 선교전략에 있어서 문화적 유연성과 함께 창의적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2. 도시선교를 위한 상황화

상황화(contextualization)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도시선교의 과제를 위한 가장 중요한 논제 중 하나이다. 건전한 상황화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바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sup>43</sup> 복음의 본질과 특성을 손상하지 않고 복음을 특정 문화에 맞게 번역하고 적응시키는 것이다.<sup>44</sup> 그러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모던 도시에서 교회는 “어떻게 복음의 문화적 적절성을 유지하면서도 성경적 충실성을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상황화는 가변적 상황에서 불변의 진리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켈러는 네 가지 관점에서 도시선교를 위한 상황화를 제안한다. 그것은 “의도적(Intentional), 균형 잡힌(Balanced), 성경적(Biblical), 그리고 능동적(Active)”<sup>45</sup>인 상황화이다.

먼저, 의도적 상황화란 성경 교리를 단순히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교리를 현대 생활에 지배적인 사회구조와 삶의 현실과 맞물리는 개념으로 번역하여 적응시키는 것을 말한다.<sup>46</sup> 각 문화에는 숨겨진 세계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인식체계가 함의되어 있기에 소통의 혼란과 오해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만약 문화적 인식이 부족하면 교회의 사역에는 인식의 왜곡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도시 사회에서 의도적 상황화는 필수적이다.

둘째, 균형 잡힌 상황화란 성경 본문과 문화적 상황 간의 다리를 놓는 소위 ‘양방향 다리’의 작업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성경과 문화가 동등한 권위를 지닌 것을 뜻하지 않는다. 최종적 권위는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뿐이다. 도널드 A. 카슨(Donald, A. Carson)이 지적한 바처럼, 각기 다른 문화관으로

43 A. Scott Moreau, “Evangelical Models of Contextualization,” in *Local Theology for the Global Church: Principles for an Evangelical Approach to Contextualization*, ed. Matthew Cook et al.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10), 165–193.

44 Keller, *Center Church*, 89.

45 Keller, *Center Church*, 89–134.

46 David Wells, “The Painful Transition from Theoria to Praxis,” in *Evangelicalism and Modern America*, ed. George Marsden (Grand Rapids: Eerdmans, 1984), 90.

‘정경 안의 정경’을 선호한다면 이는 문화를 절대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sup>47</sup> 다시 말해, 성경이 진리라고 인정하면서도 성경 안의 다른 부분이 낱아빠진 구식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런 문화중심적 해석은 문화가 성경의 권위를 초월하여 최종적인 권위를 지니게 된 것을 의미한다.

셋째, 성경적 상황화란 긍정과 부정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가변적 문화를 불가변적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상황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오직 성경만이 삶에 대해 최종적 권위를 지님을 의미하며, 동시에 비본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성경이 양심의 자유에 맡긴 상황에 있어서는 문화적 유연성을 지녀야 함을 뜻한다. 켈러는 “성경은 어떻게 옷을 입을지, 어떤 종류의 음악을 들을지에 대해 세부 사항을 지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성경적 범위 안에서 옷과 음악을 문화에 적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갈 자유가 있다”고 주장한다.<sup>48</sup> 이것은 문화적으로 상대적 영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이를 부정하면 이는 문화와 전통에 절대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능동적 상황화란 도시로 들어가 바위를 뚫듯 적극적으로 복음을 문화에 전하여 폭발적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한다. 선교에 있어 절망적 상황은 상황화에 관해 전혀 무지하거나, 막연히 상황화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찬성하는 비상황화의 경우이다. 켈러는 능동적 상황화를 위해 세 과정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것”, “문화에 맞서는 것”, 그리고 “문화 속 청중에게 호소하는 것”<sup>49</sup>이다. 이는 교회가 내부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청중의 개념성(Conceptuality)에 적응하고, 그들의 이상승배 죄를 지적하며, 복음전도를 통해 청중을 위로하고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 3. 포스트모던 도시를 위한 교회의 선교

오늘날 포스트모던의 사고방식은 적어도 세 가지 문제와 관련해 교회에 도전을 제기한다. 첫째는 진실의 문제이다. 진리에 대한 모든 주장은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진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력을 흡수하기 위한 과정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람들의 죄책감 문제이다. 죄책감은 근대에 이르러 대개는 신경증(neurosis)으로 여겨졌지만, 적어도 종전에는 복음이 청중의 죄책감과 도덕적 결점을 전제해서 전파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점점 희박

47 D.A. Carson, *Biblical Interpretation and the Church* (UK: Paternoster, 1984), 22–23.

48 Keller, *Center Church*, 116.

49 Keller, *Center Church*, 120–130.

해졌다. 셋째, 실제에 관한 의미의 문제이다. 오늘날엔 텍스트의 의미가 현장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가에 대해 강력한 회의론이 부각 되었다. 만약 교회가 “여기 성경 본문이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포스트모던적 사고를 지닌 자들로부터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텍스트의 의미가 불안정한 것 아닙니까?”라는 반응을 듣게 되기 때문이다.<sup>50</sup>

그렇다면 포스트모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sup>51</sup> 켈러는 교회가 현대 도시 상황에 맞추어 변해야 할 여섯 가지 복음전도의 방식을 제시한다. 첫째는 복음의 신학화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관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이다. 이것은 복음이 문화 가운데 갖춰진 신학과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한다.<sup>52</sup> 둘째는 복음의 실천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신학화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순과 거짓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그 가르침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셋째는 복음의 도시화이다. 도시선교를 위해 전도해야 할 주요 그룹들이 있는데, 주로 “젊은 세대들”(the younger generation), “문화적 엘리트”(the cultural elites), “접근 가능한 미전도 종족”(Accessible unreached people groups)과 “빈곤층”(the poor)의 네 그룹이다.<sup>53</sup> 넷째는 복음의 효과적인 전달이다. 포스트모던의 상황에서 복음전도는 훨씬 더 철저하고, 과정 지향적이어야 한다. 도시선교를 위해 교회는 도시의 감수성을 존중하고, 문화적 차이들에 대해 민감성을 지니고, 이웃과 정의에 대해 헌신하며, 신앙과 직업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복음전도에 대해 복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도시민들에게 매력적이면서도 도전적인 설교를 하며, 예술과 창조성을 중시해야 한다.<sup>54</sup> 다섯째는 복음의 굴욕이다. 교회는 복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굴욕에 참여해야 한다. 이는 그리스도의 연약함으로

50 “The Gospel and 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https://www.-monergism.com/gospel-and-supremacy-christ-postmodern-world-dr-timothy-j-keller> (2024년 12월 28일 접속).

51 예를 들어, 하비 콘(Harvie Conn)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도시선교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교회는 복음전도와 더불어 도시를 단순히 선교 대상으로만 간주 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변혁의 패러다임을 일으키는 선교의 중심 무대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도시를 선교적 비전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구속 은혜가 필요한 자들의 터전으로서, 사람들의 영적, 사회적, 경제적 필요를 추구하는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이해했는데,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자들의 선교를 위한 총체적 선교사역이 당위적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도시선교를 위해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기독교 제국주의에 입각(立脚)한 복음 전파를 넘어, 도시인들의 문화와 세계관을 읽고 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선교적 상황화와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고 공동체의 변혁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사역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Harvie Conn, *Urban Ministry: The Kingdom, the City, and the People of God*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1), 22, 78–79.

52 Mark D. Thompson, “A Clear and Present Word: The Clarity of Scripture,” in *New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ed. D. A. Cars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6), 56–65.

53 Keller, *Center Church*, 160–162.

54 Keller, *Center Church*, 173–178.

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교회의 연합함 속에서 드러나고, 복음의 역사는 교회가 주님의 굴욕에 참여할 때 발생한다.<sup>55</sup> 마지막으로, 복음의 성육신이다. 켈러는 성육신적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과 사회가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가를 제시한다. 그는 복음의 세 가지 속성을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그것은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Upside-Down),<sup>56</sup> “안에서 밖으로 확장되는”(Inside-Out),<sup>57</sup> “미래에서 현재로 도래하는”(Forward-Back)<sup>58</sup> 복음의 속성이다.

이상 살핀 바처럼, 켈러는 포스트모던의 현대 도시를 문화적 영향의 중심지로 간주함으로써 도시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권력이 집중된 공간이자, 지역과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변혁의 장소로 보았다. 그는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은 곧 문화를 변혁하는 것으로 이해했다.<sup>59</sup> 그런 이유로, 그는 문화적 관여(Cultural Engagement)를 도시선교의 핵심적 요소로 간주하고,<sup>60</sup> 복음을 도시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적절히 적용시킴과 동시에 도시의 가치와 구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Common Grace)를 인정해야 한다고 이해한다.<sup>61</sup>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이 기존의 문화적 서사와 충돌할 때 반문화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든 우상숭배적인 죄악들을 해체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62</sup> 게다가 그는 현대 도시의 다문화적 특성을 인정하면서 교회의 선교가 다문화적인 민감성과 포용을 지녀야만 한다고 시사했는데, 그런 이유로 현대 도시 교회는 “다양한 민족, 언어,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그는 강변한다.<sup>63</sup>

특히 켈러는 도시 안의 공동체적 통합을 위해 이민자와 소외된 그룹들에 대한 선교적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복음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 것

55 Sinclair B. Ferguson, *Man Overboard* (Wheaton, IL: Tyndale, 1981), 70-71.

56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합함과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사건이다. 이는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며,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중심에 두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다. 켈러는 창세기의 레아 내러티브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선택하심으로써 복음이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속성을 드러내신다고 설명한다; Keller, *Center Church*, 46-47.

57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외적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이는 내면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힘을 제공함을 뜻한다; Keller, *Center Church*, 47.

58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올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며, 성령은 미래의 영광을 현재에 보증한다. 이는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이끈다는 것을 말한다; Keller, *Center Church*, 47.

59 Keller, *Center Church*, 92.

60 Keller, *Center Church*, 102.

61 Keller, *Center Church*, 112-113.

62 Keller, *Center Church*, 122.

63 Keller, *Center Church*, 137-138.

인데,<sup>64</sup> 그는 도시를 모든 민족과 언어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 제시한다. 이는 켈러가 교회를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정체성을 지닌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sup>65</sup>로서 이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도시의 필요를 파악하고, 빈곤층, 무주택자, 그리고 기타 소외된 계층을 섬기며, ‘도시가 지닌 병폐와 문제’<sup>66</sup>에 민감하여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 선교적 공동체로 교회를 이해한 것이다. 이 같은 켈러의 도시선교 신학은 현대 도시의 복잡성과 다원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도시 상황에 관한 통찰력과 선교적 사역으로서 교회의 나아갈 실천적 방향을 적절히 제시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V. 결론

오늘날 세계화와 도시화의 급격한 증가 속에서 도시선교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 시대에 교회는 도시의 사회적, 문화적 복잡성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복음의 변형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첫째, 교회는 복음의 사회적, 공동체적 차원을 강화해야 한다. 도시의 가난, 차별, 그리고 사회적 단절은 교회가 정의와 화해,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적으로 구현해야 할 중요한 이유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영적 메시지의 전달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현하는 사명을 포함한다. 둘째, 현대 도시 교회는 복음의 상황화를 통

64 Timothy Keller, “Ministry in the New Global City,” *Journal of Urban Ministry* 5(1) (2013): 22–24.

65 Keller, *Center Church*, 251–276.

66 참고로 UN이 최근 발표한 급속한 도시화 현상의 병폐는 다음과 같다. UN은 계획되지 않은 채 급격하게 진행된 세계 도시화의 심각한 문제로서 다음 네 가지의 문제를 지적한다. 첫째, 주택과 빈민가의 이슈이다. 개발도상국 도시에서는 인구의 30% 이상이 비공식적으로 정착촌이나 빈민가에 거주한다. 이는 불충분한 주거생활과 깨끗한 물과 위생과 같은 기본 서비스의 부족 현상 그리고 불안정한 거주 조건 등을 의미한다. 특히나 도시 내에서 슬럼가의 상황은 빈곤을 악화시키고, 불평등을 영속화하며, 공중 보건과 같은 사람들의 안전을 저해한다. 둘째, 인프라 부족의 문제이다.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의 도시 인프라는 여전히 인구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부적절한 도로, 대중교통, 수도 시스템 및 전기 네트워크는 경제적 생산성을 저해하고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 셋째, 기후 변화로 인한 도시 생활의 영향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인 기상 현상, 폭염 등은 도시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어, 저지대나 해안 지역의 많은 도시는 시급한 기후 변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에 오늘날 실존적 위협에까지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끝으로, 도시 내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차별이다. 도시화는 종종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소외된 집단은 주거, 교육, 고용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균형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 도시의 사회구조는 범죄 및 배제와 같은 문제로 인해 더욱 압박받는 실정이다; United Nations, *The rapid rise of urbanization*, <https://www.un.org/en/global-issues/human-settlements> (2024/12/23).

해 다문화적이고 다원적인 도시 환경에 적합한 선교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각 문화와 사회가 가지는 특수성을 존중하고, 해당 문맥에 맞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상황화는 성경적 충실성과 문화적 민감성을 동시에 요구한다. 셋째, 교회는 도시를 단순한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종말론적 비전을 지닌 공간으로 재인식해야 한다. 도시는 하나님의 정의, 평화, 사랑이 실현되는 무대이자, 복음의 능력이 모든 인간의 삶의 영역에 스며드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로 인해 교회는 복음전도를 통해 도시를 변혁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다. 넷째, 도시선교는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도시 속 다양한 공동체를 연결하고, 소외된 이들을 품으며, 복음의 능력을 통해 도시의 병폐를 치유하는 사역을 펼쳐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교회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도전을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는 선교적 접근을 통해 현대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이런 선교적 교회로서 사역적 실천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현대 도시에 적절한 모범적 사역이 될 것이다. ㉞

**<참고문헌>**

Allen, Roland. *Missionary Methods: St. Paul's or Ours?* Grand Rapids: Eerdmans, 1962.

Audi, Moses. "The Models, Challenges and Prospects of Urban Mission." *Practical Theology* 1 (2008): 18-30.

Augustine, *The City of God*, translated by Henry Bettenson. London: Penguin Books, 2003.

Berger, Peter L. *The Social Reality of Religion*.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1973.

Berryman, Philip. *Religion in the Megacity: Catholic and Protestant Portraits from Latin America*. Maryknoll, NY: Orbis Books, 1992.

Brueggemann, Walter. *The Prophetic Imagin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Carson, D. A. *Biblical Interpretation and the Church*. UK: Paternoster, 1984.

Castells, Manuel.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Malden, MA: Blackwell, 1996.

Claerbaut, David. *Urban Ministry*. Grand Rapids: Zondervan, 1983.

Conn, Harvie M. & Ortiz, Manuel. *Urban Ministry: The Kingdom, the City, & the People of God*. Downers Grove: IVP, 2001.

\_\_\_\_\_, *Urban Ministry: The Kingdom, the City, and the People of God*.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1.

Ferguson, Sinclair B. *Man Overboard*. Wheaton, IL: Tyndale, 1981.

Gonsalves, K. de Oliveira. "A Critique of the Urban Mission of the Church in the Light of an Emerging Postmodern Condition." Ph.D. diss, Andrews University, 2005.

Greenway, Roger S. "Success in the City: Paul's Urban Mission Strategy: Acts 14:1-28." In *Mission in Acts:*

*Ancient Narratives in Contemporary Context*, edited by L. Robert and P. H. Gallagher. Maryknoll: Orbis, 2004: 183–195.

Guder, Darrell L. *Missional Church: A Vision for the Sending of the Church in North America*. Grand Rapids: Eerdmans, 1998.

Hauerwas, Stanley. *The Peaceable Kingdom*.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ww.ilo.org](http://www.ilo.org)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https://www.iom.int>

Irvin, Dale T. “The Church, the Urban, and the Global: Mission in an Age of Global Cities.”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33(4) (2009): 177–182.

Keller, Timothy. “Ministry in the New Global City.” *Journal of Urban Ministry* 5(1) (2013): 22–24.

\_\_\_\_\_, *Center Church: Doing Balanced, Gospel-Centered Ministry in Your City*. Grand Rapids: Zondervan, 2012.

Kimball, Dan. *The Emerging Church: Vintage Christianity for New Generations*. Grand Rapids: Zondervan, 2003.

Ladd, George E. *The Gospel of the Kingdom*. Grand Rapid: Eerdmans, 1959.

McGrath, Alister E.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2001.

Meeks, Wayne A. *The First Urban Christians: The Social World of the Apostle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3.

Moreau, A. Scott. “Evangelical Models of Contextualization.” In *Local Theology for the Global Church: Principles for an Evangelical Approach to Contextualization*, edited by Matthew Cook et al.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10: 165–193.

Murphy, Nancey. "Missiology in the Postmodern West: A Radical Reformation Perspective." In *To Stake a Claim: Mission and the Western Crisis of Knowledge*, edited by J. A. Kirk & K. J. Vanhoozer. Maryknoll, NY: Orbis, 1999: 96–119.

Niebuhr, Richard.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Row, 1951.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www.oecd.org](http://www.oecd.org)

Ortiz, Manuel. "The Church and the City." In *The Urban Face of Mission: Ministering the Gospel in a Diverse and Changing World*, edited by Manuel Ortiz & Susan S. Baker. Phillipsburg,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2002: 43–59.

Putnam, R. D. & Campbell, D. E. *American Grace: How Religion Divides and Unites U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10.

Rowe, Christopher K. *World Upside Down: Reading Acts in the Graeco-Roman 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Sassen, Saskia. "The Global City: Introducing a Concept." *The Brown Journal of World Affairs* 11(2) (2005): 27–43.

\_\_\_\_\_, "The Global City: Strategic Site/New Frontier." In *Democracy, Citizenship, and the Global City*, edited by E. F. Isin. New York: Routledge, 2000.

Schnabel, Eckhard J. "Paul's Urban Strategies: Jerusalem to Crete." *Stone-Campbell Journal* 10 (2007): 231–260.

\_\_\_\_\_, *Early Christian Missi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2004.

\_\_\_\_\_, *Paul the Missionary: Realities, Strategies and Methods*. Downers Grove: IVP, 2008.

Shenk, Wilbert R. "The Culture of Modernity as a Missionary Challenge." In *The Church between Gospel and Culture: The Emerging Mission in North America*, edited by G. R. Hunsberger & Craig Van Gelder. Grand Rapids: Eerdmans, 1996: 69–78.

Stott, John.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Grand Rapid: Zondervan, 1984.

\_\_\_\_\_, *The Contemporary Christian*.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92.

\_\_\_\_\_, *The Cross of Christ*.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6.

Thompson, Mark D. "A Clear and Present Word: The Clarity of Scripture." In *New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edited by D. A. Carson.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6.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www.un.org/development/desa/pd](http://www.un.org/development/desa/pd)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www.unhcr.org](http://www.unhcr.org)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Programme, *The State of the World's Cities, 2004/2005: Globalization and Urban Culture*. London and Sterling: Earthscan/UN-Habitat, 2004.

United Nations Network on Migration: <https://migrationnetwork.un.org>

United Nations, "The rapid rise of urbanization." <https://www.un.org/en/global-issues/human-settlements> (2024/12/23).

United Nations, *Building Cities of the Future Must Start Today*, <https://www.un.org/en/academic-impact/building-cities-future-must-start-today> (2024/12/23).

United Nations, *Human Settlements*, <https://www.un.org/en/site-search?query=urban> (2024/12/23).

Wells, David. "The Painful Transition from Theoria to Praxis." In *Evangelicalism and Modern America*, edited by G. Marsden. Grand Rapids: Eerdmans, 1984: 83-93.

Wright, C.J.H.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4.

\_\_\_\_\_, *The Mission of God*.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2006.

Wright, N.T. *Simply Christian*. London: SPCK, 2006.

“From Megacity to ‘Metacity’—The Shape of the Future,” [https://albertmohler.com/sitesearch/?\\_keywords=from+megacity+to+metacity](https://albertmohler.com/sitesearch/?_keywords=from+megacity+to+metacity) (2024/12/28).

“The Gospel and the Supremacy of Christ in a Postmodern World.” <https://www.monergism.com/gospel-and-supremacy-christ-postmodern-world-dr-timothy-j-keller> (2024/12/28).

## &lt;Abstract&gt;

## The Study of Urban Mission and Church Ministry in the Postmodern Era

**Bae, Choon Sup**

Chongshin Seminary/Assistant Prof.

This paper explores the role of urban missions and church ministries amidst rapid urbanization and the postmodern era. In a contemporary society where the majority of the global population resides in cities, the church must comprehend the theological foundations of urban missions and practically apply them. It discusses the strategic importance of urban-centered missions within biblical contexts and proposes contextualization strategies to address the pluralistic cultures and societal challenges of modern cities. The study reinterprets cities as eschatological spaces where God's justice, peace, and love are realized, emphasizing the church's integrated mission of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It presents approaches for restoring the church's missional identity and effectively communicating the gospel in urban settings, asserting that urban missions are essential for the realization of God's kingdom.

| **Key Words** | Postmodern, Urban Mission, Contextualization, Missional Church, God's Kingdom.

| **Posted Date** | 2024. 12. 30.

발표 Ⅲ

# 도시 선교와 도시 사역 : 예수향남교회의 관점에서



정갑신 목사 Gap-Sin Jeong  
예수향남교회

## 1. 도시에 관한 성찰의 기초

자크 엘뤼 - 가인의 도시(두려움과 의심) - 도시의 본질과 기원에 관한 성찰

팀 켈러 - 렘29:4-7 바벨론 미션(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에 근거한 상황화) - 요나서

## 2. 도시와의 관계와 태도에 관한 성찰

### 1) 도시를 향하는 복음의 속성

Inside Out / Upside Down / Forward Back

### 2) 두려움과 의심을 사랑과 신뢰로 버티기(그것이 예수의 길이였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향하고 있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 곳으로 더 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도시적인 성품(Urbanity 혹은 적절한 상황화의 세속성)이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 언어, 문화, 태도에서 -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싶으면, 낮은 자리로 가라! 낮은 자리들은 도시에 집약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3) 도시와의 관계에서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눅 19:12-26 - 초대교회, 리디머

**4)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은 질문과 대답이다** 왕하 4:1-7

: 배교의 시대에, 한 가정의 이슈가 마을 공동체를 향한 도전이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만 답할 수 있었던 내용으로 상황이 전개된다.

**5)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여기 있게 하심>에 대한 대답자로 있는가, 소비자로 있는가?  
 도시를 보는 나의 관점은, 복음적으로 건강한가?  
 - 과잉적응, 과소적응, 필요약적 적응 아니면, 복음적 적응 등

**3. 복음적 도시 적응을 위한 적절 모델 찾아가기**

소비자 모델 - 방관적 이용자 - 소비자 모델의 현상,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나 - 룯 모델

정복자 모델 - 이미지와 영향력 - 정복자 모델의 현상 :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나 - 이 산지를 내  
 게 주소서 - 도시 안에서, 도시를 향한 영향력에 집중하려는 정신으로 촉발하는 행  
 동들 - 여호수아 모델, 바이블 벨트

기여자 모델 -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일차적 적용 / 평안을 위한 섬김 - 바벨론 모델

채무자 모델 -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본질적 적용 - 주체의 변화

채무자 의식(바울)

왕하 4:1-7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많이 빌려라!

향유를 허비하는 여인의 수혜자 예수님 V 그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마땅하다는 제자들

- 교회는 진정한 기여자가 될 수 있는가?

레비나스 - 도시의 필요에 '중' 되기

허드슨 테일러의 실천

강영희 선생님 - 생일선물, 전화소통을 통해 자신을 빛진 자의 자리에 두기

교회는 세상의 약자들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 같다. - 바울의 인식 -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직 충분히 나타나지 않음으로 신음하고 있다 - 따라서,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아들딸들, 곧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세상에 내어주는 자녀들이 되어가는 것이고, 세상은 우리가 더욱 더 그런 자녀들이 되어가도록, 여전히 어둠과 혼란 속에서 악역을 감당하느라 신음하며 기다리면서 수고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식이 필요한지 모른다 - 말 안 듣는 자녀에 대한 인식 - 혹 때로는 신자들보다 훨씬 더 신자다운 비신자들을 통해서 신자들의 통찰보다 훨씬 더 복음적으로 통찰하는 비신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지고 있다.

교회 공동체가 도시에게 적극적인 채무자가 된다는 건? 무엇보다 도시에 감사하라!

도시에 대하여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채무의식을 찾으라.

#### 4. 실천

우리 교회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답하기 위해 묻기 - 비전기도회

예) 제자반 -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

청소년 사역 시작 - 이주민 월드컵 - 이주민 축구단 및 블루핀드림 사역

향남센터치치 - 복음공부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의 사이즈를 '내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존재에서' 상대화시킬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 큰 교회들 안에서도 작은 교회들과 대등하게 함께 할 수 있는 태도가 형성되어야 한다 - 작은 교회를 도울 때, 작은 교회의 필요의 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그들을 돕는 자가 아니라, 그들을 돕는 특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수혜자로서, 더 나아가, 그들의 필요가 우리에게 명령하게 하는 종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한다 - CTCK 형성의 조건과 진행되고 있는 사역에 관하여

위 러브 빛가람 - 위 러브 향남

## 5. 다시 성찰

- 다만, 도시 사역에 참여하는 각 개인과 교회들에게 필요한 전제는 내가 누군가,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다.

서동욱 교수, <철학은 날씨를 바꾼다> 중에서 ... “우리는 성급하다. 그래서 남이 찾은 답안을 빌려 빨리 사용하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 성공적 사업의 해답, 공부의 해답을 찾아 몰려다닌다. 그런데 남들이 찾아낸 답이 자신에게도 꼭 맞던가? 얼마간 참고는 될지 몰라도 결코 자신을 위한 답은 되지 못할 거다. 왜? 답이란 그 답을 얻어 낸 질문과 떼어 낼 수 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활짝 핀 꽃송이를 꺾어 가지듯, 해답만 똑 따 낼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해답이란 문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는 결과다.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해답의 범위와 성격을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는 각자가 앓는 저만의 질병처럼 각자의 삶으로부터만 피어오른다. 🌐

